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 올려 드리는 산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7월 27일 (토) 제 1977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방법 씨름해 볼 가치가 있는 경이로움

만약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밝혀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 될 때 설교가 여전히 영혼을 만지고 진리가 선포될 수 있을까? 손을 높이 들었으나 성령께서 풍성히 거하시는 찬양이 없고 평소의 울림이 부족한 예배를 상상해 보라. 회중들이 떠날 때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예배가 전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위협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 나의 목회 여정은 1999년 작은 아파트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실험적인 신자 집단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노숙자였으며 소위 "진정한 영성"이라 부르는 것을 추구했다. 그 단순한 모임은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는 우리의 취약한 믿음, 의심, 외로움, 슬픔, 정신 건강에 대해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찬송가, 합창곡, 시편을 찬양했다. 공적 교육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 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도다"(창 28:16, 새번역)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박한 출발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결국 우리는



오래된 교회 지하실로 옮겼다.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모임은 조금 더 형식을 갖추게 되었지만, 간절함과 단순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우리는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진로 결정, 관계, 유산, 이사 문제 등에 대해 서로를 격려했다.

몇 년 후, 교회는 대형 기관과 유사해졌다. 5년 사이, 세 번째 재정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사역자들은 분열되고 지쳤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반수면 상태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교인들을 진정한 예배로 초청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배후의 혼란을 능숙하게 가리면서도, 우리가 나름 준비한 예배가 초기 모임만큼 교인들을 영적

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아파트 교회 시절과 더 큰 교회의 현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단지 더 젊었다는 것과 이상주의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공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명백하게 느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조직화된 교회와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종종 나를 괴롭혔다. 나는 우리 초기의 단순함과 큰 규모 모임의 복잡한 진정함의 과정이었다고 믿지만, 내 자신의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이유는 탈주술화였다.

믿음이 기능으로 변화되었을 때

20세기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근대성의 효과를 탈주술화로 묘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베버가 보았듯이 계몽주의 이후, 과학혁명 이후의 세계는 신비로움으로부터 탈피했다. 베버는 전차를 타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현대인에게는 도서관에 가거나(그의 시대에는) 빠른 구글 검색만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요점은 이 기본 설정이 매 순간의 초월성을 없애 버린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신비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

(3면으로 계속)



'인사이드 아웃 2'는 불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지혜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도 될까요?" "기독교 고등학교에서는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다시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야 할까요?"

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발전,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싶어 하며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의 내 모습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은 올 여름 흥행한 인사이드 아웃 2의 핵심 내용입니다. 픽사 팬들은 인사이드 아웃(2015)에서 기쁨, 슬픔, 소심, 버럭, 까칠이가 함께 힘을 합쳐 라일리의 새로운 중학교 생활을 도와주었던 11살 라일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라일리는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하기 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며 사춘기의 복잡한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라일리의 사춘기에는 새롭고 혼란스러운 다섯 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당황, 부럽, 따분,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에서 한편으로는 마비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하게 만드는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목회단상 광덕근 목사



푸른초장 주양명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독후감 쓰는 방식에 관하여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여름이 무르익을 즈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배 장로, 북가주 크리스티안타임즈 발행인)에서 주최하는 독후감 공모 기사가 사망 눈에 띈다. 벌써 10회째다. 회를 거듭할수록 한국을 제외한 해외 동포들에게 신앙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하루가 짧게 변하는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찰나의 순간을 여유 있게 만들어 하나님에게 고경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시공간의 영향 없이 나의 삶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연습이 책 읽기다. 올해는 총 7권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타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불즈웨이, 윤종석 역, 바람이불어오는곳> <일상의 유혹, 손성찬, 토기장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석, 도서출판 KMC>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인미, 시시울> 추천도서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특별한 것은 한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작가의 작품이 한 권씩 선정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회는 엘에이에 거주하는 이인미의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가 선정되었다.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작가로서도 영광이지만 타국의 정서를 책을 읽는 독자들도 서로 공유할 이야기가 있다.

독후감은 의외로 간단하다.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적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논리이기 때문에 혹 복잡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한 문장으로 만들고 제목을 설정하라. 책을 선정한 이유, 저자 정보,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라. 그 요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감정이입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나타난 현상과 미래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 보라. 이 정도면 단순 독후감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후감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책 내용의 요약은 명확해야 한다. 명료성은 책을 읽은 독자가 그 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 내용을 요약할 때 주의 사항은 그 내용을 내 것처럼 표현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읽은 책의 내용은 독자의 산물이 결코 아니다. 독후감을 읽고 느낌을 기록하는 주어는 항상 1인칭인 '나'이다. 주어가 2인칭, 3인칭이 되면 그것은 독후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 설교, 훈계, 논평, 논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독후감은 나의 느낌을 적는 것이다. 신앙도서 독후감에서 가장 많은 실수는 간증문형식이다. 독후감은 간증문이 아니다. 독후감은 요약, 비평, 서평, 평론도 아니다. 하지만 독후감의 문장은 논리적이어서, 한다. 마지막 문으로 주의할 것은 주체 측에서 독후감 공모 시 제시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글자 크기, 분량, 간격 등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필자는 신앙도서독후감공모 1회부터 심사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한 해, 한 해 고개를 넘으며 꾸준히 독후감공모를 이어가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에 감사사가 깊고 넓다. 굳이 독후감에 응모를 하지 않더라도 추천도서를 통해 매년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일은 독후감 수상자 중에 김복숙 시인은 이미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9회 응모자였던 임지영은 문학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독후감 공모를 통해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를 소망하는 마음도 식지 않고 있다. 올해도 기대되는 이이다.

www.epipodo.com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용서의 생성자가 아니다. 배포자일 뿐이다.

용서는 가슴을 찢는 고통이다. 내게 악의를 갖고서 상처를 입힌 자를 누가 용서하고 싶을까? 또한, 용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한편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심이기도 하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검토하고 과연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용서에 꼭 필요한 도덕적 심각성으로 행위나 행위를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 내지 경시하는 것이다. 르완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자백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인데도 분노한 피해자와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그들이 저지른 도덕적 빛을 청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면하지는 않는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면의) 용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용서에는 두 단계, 즉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과 외면에서 발생하는 화해의 악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용서"라는 용어는 두 부분 모두에 다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팀 켈러는 이를 "안으로 향하는" 용서와 "밖으로 향하는" 용서라고 부르며, 데이비드 파울리슨은 이를 "태도적" 용서와 "거러된" 용서라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용서"라는 꼬리표가 첫 번째 단계, 즉 가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빛을 풀어주는 고통스러운 작업에도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가해자의 회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라고 기도하셨고, 스테반은 자기들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행 7:60)라고 기도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돈 카슨은 원칙적으로 켈러와 파울리슨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용서"를,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용서에 대한 카슨의 견해는 속죄에 대한 그의 이해와 일치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죽음은 오로지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용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4면으로 계속>

용서는 회개를 요구한다. Unpacking Forgiveness에서 크리스 브라운슨은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1. 회개 없는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엡 4:32)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용서 전에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신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행 2:38)라고 말했다. 결국, 용서받으려도 지옥에 있을 사람은 없다.

2. 회개 없는 용서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의 도덕적 빛을 스스로 정리한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해자가 다시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내가 높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가해자는 이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준비를 갖춘다.

3. 회개 없는 용서는 도덕적 심각성을 상실한다.

그런 용서는 잘못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는 이렇게 썼다. 그가 회개한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그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한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하고

4. 회개 없는 용서는 쉽게 치료요법용 용서로 이어진다.

대중적이고 잘못된 견해는 용서의 핵심이 나의 정신 건강이라는 가정이다. "그녀가 나에게 한 일을 회개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녀가 감아놓은 잘못된 사슬을 끊고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그녀를 깨끗하게 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 용서라는 치료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일 예배에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비슷한 또 다른 형태의 방어 움직임이다. 진정한 용서는 이기적이지 않다. 용서는 화해를 목표로 하며,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즉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때까지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상처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용서에 회개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들을 향해 변하지 않는 원한을 품고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들의 주장은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하는 어려운 내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제공하려는 용서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 우리는 온갖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4(2차)MD 목회자, 사역자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Gospel and Holy Spirit Conference for Pastors in MD
일시: 24년 9.17(화)-19(목)
장소: 안나산기도원 7910 Peters Rd. Frederick, MD 21704
등록비: \$50/ 등록문의 814.882.1278 (Baek 간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 성령컨퍼런스 주강사
사모 영성세미나 주강사
목회자 능력기도회 주강사
KAPC,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팬실)소속목사
Korean Church of Erie 담임 Zoe Ministries USA 대표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예배의 중심에...

(1면에서 계속)

(Charles Taylor)는 베버의 주장에 더해 현대성이 특히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만연한 회의론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 한때 초월성에 대한 믿음과 대부분의 개인이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신비와 힘의 존재를 인정하던 믿음이 일상생활을 뒷받침했던 시대 정신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바뀌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지적 담론의 대부분은 모든 것이 물질적 단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즉 신 없는 현실의 가정 하에서 운영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많은 신비로운 현상을 비신화화 했다. 전염병은 더 이상 신령한 영이나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결과이며, 악천후는 신의 행위가 아니라 기압 시스템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베버의 전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믿는다. 기독교인,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비슷한 렌즈를 통해 영적인 삶을 보는 공통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적 체험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과정의 결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주일 예배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든, 목회 사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에는 특히 강한 매력에 있다. 통제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이해는 가지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실용주의와 슬프게도 냉소주의의 길로 인도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교회 모임은 연상을 불러 일으키는 찬양이나 이벤트적 설교에 의존함으로써 "의미 있는 순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나쁜 것은 초월성에 굶주린 교인들이 이러한 조작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모임을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반응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생산, 성과 및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건강의 몇 가지 중요한 지표인 영적 성숙, 지혜, 성품 및 사람이 부족한 공허한 사역을 초래할 수 있다.

번아웃된 파수꾼들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탈주술화로 인한 본질적인 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항복이 아니라 도전으로서 맞서고 씨름해야 할 과제이다. 그레야만 우리는 성령의 적극적인 임재에 진정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 이는 활동에서 존재로 전환하라는 초대이다. 설교, 기도, 예배 인도, 심방과 같은 실제적인 사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소식은 이 길이 어둠에 가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갈망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

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시편 42:3-4).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것이다. 시편 기자가 연약한 순간에 쇠신을 추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전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탐구는 개인과 공동체를 막론하고 탈주술화에 빠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다.

다른 이들을 경이로움으로 이끄는 것은, 전체 회중을 위해 햇볕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목회자들이 영적 쇠신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을 개척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벗고 대신 구도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안전한 공간은 웅장한 교회당이 아니라 소그룹, 우정, 심지어는 교회 지하실에서의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 피로감에 취약하다. 이러한 감정



은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반에 걸쳐 수많은 예언자와 성도들이 직면한 고난을 반영한다.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용감한 영혼의 역사에 여러분을 맞추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회중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피곤함과 탈주술화는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영적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자와 성도 모두에게 이해와 쇠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법적인 공식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는 것이 신앙의 생명선이다. 냉소주의와 정체를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열린 마음과 연약한 영혼은 우리가 갈망하는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추구를 통해, 마법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끌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영웅의 죽음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 멘토, 동료들에 의해 교회 서사의 영웅으로 캐스팅되었다. 그들은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지혜로운 상담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잠시나마 감정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당신을 영웅으로 여길 때 왜 당신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압박감은 당신의 영혼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신, 목회자들은 서사를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예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영웅이지만, 그것을 신학적인 프레임에서만 구성하는 것은 교회가 냉소주의와 탈주술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핵심은 영웅 패러다임을 버리고, 교인들이 영적 여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인공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 목사, 지도자, 멘토는 이 여정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종종 장애물과 도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지만, 천국을 향해 개인이 밟아야 할 발걸음을 대신 내딛거나 밟을 수는 없다. 실제로 이는 교회를 실제적이고 생생한 영성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에게 도구를 제공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의심과 탈주술화의 감정을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로서 그것은 또한 개인적인 자존심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다', 혹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창한 비전을 추구하는 대신, 임재의 조용한 순간을 맞도록 독려한다면 어떻게 될까? 병상 옆에 있는 것, 삶의 희로애락을 받아들이는 것, 교인들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행동이다. 자리를 빼고 헌금을 모으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요점의 일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 임재하시는 것을 의존하는 훈련을 통해 자라나야 한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야만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자신 이외의 것에 굶주린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간격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 어두운 아파트에서 함께 조용히 드리는 기도를 기립 박수와 맞바꾼다면 어떻게? 연기를 뿜는 기계와 세련된 설교로 조율된 연극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초창기를 연상케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는 기도 말이다. 우리의 불씨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으로 점화되기를 바란다.

by Mike Cospier, CT

목회단상

아내의 감사 노트



곽덕근 목사 (은혜와명강교회 담임)

세 자녀를 낳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이미 원더우먼입니다. 게다가 남편에게도 '내가 세 아이나 낳아줬는데 뭘 더 바라냐고' 평평거립니다.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2019년 가을, 막내 딸 수경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아내의 수경이까지 대학에 갔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도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20년, 우리 세대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외부 활동이 어려워졌고, 교회도 shut down이 되었습니다. 수경이는 집에서 ZOOM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고, 마침내 딸 하경이도 medical school을 졸업하고 레지던트로 일할 병원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팬데믹 와중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가정에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불어 닥쳤습니다. 제 아내가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목과 손목을 거쳐 발목으로 내려가면서 급기야 밤낮으로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해 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이라는 병명이 나왔지만, 그 병은 원인과 치료도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통증 부위도 점점 더 퍼져나가 급기야는 내장 기관에서까지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숨가쁘고 듣기 힘들었고, 자기 바로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소파로 누워 있는데 수경이는 두 손목을 주물렀고, 하경이는 두 발목을 주물렀고, 저는 아내의 아파하는 기숨을 눌러주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앓은 감감해졌고, 하늘은 노래졌고, 속에서는 방언 기도가 나왔습니다.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되는 와중에 제 아내는 날마다 감사 거리를 찾아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의 일부 감사 거리를 소개합니다.

수경이랑 날마다 허그하며 "사랑해"라고 말 할 수 있음에 감사. 근 열흘 만에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마가복음 다 써서 감사. (그 아픈 팔로...)

통증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아직까지 위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 (곧 독한 약물로 인해 위에 큰 문제가 생김)

통증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감사. (곧 통증으로 걸기도 힘들게 됨) 하경이가 발톱 깎아 주어서 감사.

교회 옆에 사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거리였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매일 기도하러 갈 수 있음에 감사.

아무리 아파도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 아무리 아파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하며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통증은 점차 사라졌고, 마침내 아내의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생긴 감사 거리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199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리"는 설교를 수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주일예배 때 "아내의 감사 노트"를 소개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때 평생 처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수 차례 박수세례를 받았습니. 나는 거기 모인 성도들과 함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속으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귀한 감사의 간증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revkwa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lachpress@gmail.com 6554 W. Desert Inn, Re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대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rosco@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대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EN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8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탄성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자 연합: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3,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xton, MA 01748	센터빌안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6235, www.koreancp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저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as.com 600 Gra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842-0288, Fax: (215) 8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 4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 636-6675, www.tacomacp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우리에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따뜻한 하루라는 제 얘기를 읽으며 감동한 적이 있
목으로 오는 글 중에 이런 이 습니다. 어느 곳에 다섯 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서도 주눅이 들어있어 아버지는 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다섯 그루의 어린나무를 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의 자식에게 나무 한 그루씩을 나누어 주며 1년이라는 기한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지원할 것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1년이 지났 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뒤뜰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그루의 나무 중에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병약한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는데 아버지의 예상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여야 할지도 몰라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그리워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모두 앞에서 공표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유약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어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마워서 뒤뜰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스름한 안개 속에 그의 나무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약한 아들의 나무를 아버지가 길러 준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식물학자는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합니다.

병약한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일까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 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주양명 목사

(사라제일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헌신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헌신은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까지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되 돌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얼마나 완전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점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의 헌신은 과연 몇 점짜리라고 자신하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 보면서, 구체적인 헌신에 대해 도전받고, 삶 속에서 적용하리라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헌신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모든 계명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온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동일한 장면이 막 10장, 눅 18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첨가합니다. 막 10:21 상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라 가라사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 왔지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라 불쌍히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좇으라." 때때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영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면, 걸리져거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에 앞서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 이것이 헌신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재물과 내 재능, 내가 가진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는 비성경적이고, 도덕적 해이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헌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하 20:12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압론과 모압의 큰 연합군이 유다왕국과 전쟁하기 위해, 이제 막 사해를 건너와서 유다 땅 엔게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이미 120만 이상의 군사가 있었지만(대하 17:13-19), 싸우러 온 적군의 수효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

았습니다. 이미 적군이 유다 땅에 넘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어떤 작전이나 계획도 세우지 않았 습니다. 그들을 회유한다거나 항복 하려고 하지도 않았 습니다.

대신에 여호사밧은 온 국민들에게 금식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모인 온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적군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 전장으로 출동하는 무장한 군대 앞쪽에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며 적군을 향해 걸어갑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그들은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죽을지

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찬양하며 나아갔 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시적으로 연합을 했던 적군들은, 서로 죽고 죽이며 피차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유대 군인들은, 이미 죽어 버린 적군들의 시체만 보았을 뿐, 자기들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 습니다. 그들이 적들이 남긴 물건들, 즉 전리품만 3일 내내 굶어 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였던 에스더는 자기만 살고자 하지 않았 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말입니다. 충성(忠誠)이란 '마음(心)의 중심(中)에서 하나님의 음성(言)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成)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 른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있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직분 하나 소홀히 해도 될만한 직분이 없습니다. 다 주 안에서 섬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다른 모습의 헌신이 요구될 뿐입니다. 헌신의 내용은 다 다

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가서,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하셨 습니다. 제사장들은, 흠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 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수 3: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좌우의 강가에 물이 넘칠 정도로 수량이 확 불어난 요단강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갔더니, 넘실대며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강에 들어선 제사장들을 기준으로 요단강 상류는 물이 계속 쌓여서 강가 좌우로 넘쳤고, 하류는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혹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휩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선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명예, 권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mjufll@gmail.com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고전 4:1-2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가 누리는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전 4:2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군대에 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

르겠지만,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됩니다. 전임자였던 모세의 카리스마가 워낙 출중했기에, 후임자인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하에 요단을 건너라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들...

(2면에서 계속)

이런 두 단계 접근 방식은 "객관적" 정당화와 "주관적" 정당화라는 루터교의 개념과 유사하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지만, 주관적으로는 구원의 믿음을 통해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접근법은 한편으로는 극단적 쓰라림을,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은혜를 막아준다. 우리는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잘못을 내면에서 다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회개할 때까지 그 용서를 결코 화해의 단계로 가져가거나 거래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상은 항상 바

람이 잘 통하고 마냥 상쾌한 곳도 아니다. 화해가 있으려면 그 전에 가해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하고, 앞에서 브라운즈가 언급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회개 없는 용서는 비성경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치료적 시도이며 또한 당연히 꼭 필요한 도덕적 심각성이 빠진 상태에서 잘못을 다루는 게 아닌가?

예탁 용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수정된 두 단계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의 경우,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용서(forgive)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면(pardon)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당연하다. 죄는 언제나 상황을 이상하게 만든다. 용서가 필요한 동일한 죄인들이 회개를 영망으로 만들고 고백에서 화해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일은 항상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결합된 두 가지 요소, 즉 지복과 사면을 분리해야 한다. 용서란 가해자의 도덕적 빛을 갚거나 흡수함으로써 받아주는(pardon)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회개하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야 함은 분명하다. 발생한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도덕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가해자에게 용서를 보장한다. 가해자가 어떤 이유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복과 사면을 분리한다. 회개하지 않았

기에 우리는 사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친구 로버트 위날다 3세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가해자의 이름으로 도덕적 수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수표는 가해자가 회개할 때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덕적 제삼자에게 계좌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용서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올바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면은 오로지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조건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회개 없으면, 용서도 없다. 동시에 이 제안은 가해자의 완고함이 원한을 품어오 되는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만족시킬 것이

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용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 이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적 수표책 위에 펜을 놓고 지불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우리는 실제로 수표를 쓴다. 빚을 갚는다. 이제 모든 일은 우리 손을 떠났다.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해결책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용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며 특히 깊은 상처의 경우 더욱 그렇다. 피해자에게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금액만큼 가해자의 이름으로 비유적인 에스스로 계좌에 수표를 쓰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잘못으로 인한 도덕적 비용까지 사면한 건 아니다. 피해자는 쓰라림과 값싼 은혜를 모두 다 피하

는 동시에 상대의 잘못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두 가지를 다 거기에 걸맞은 도덕적 심각함으로 대할 것이다. 마지막 요점이 중요하다. 도덕적 수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그 내 계좌에서 나가서, 내 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특이한 냉혹하게 나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는 인간을 용서할 여력이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덕적 빚을 갚을 수준의 은혜를 내 속에서만 들어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기 위해 준비하신 기부금에서 마음껏 인출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용서의 생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힘겹게 번피의 돈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배포자일 뿐이다.

by Mike Wittmer, TGC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믿음에 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들이 많다. 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제물에 붙은 마음을 떼어내지 못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해지는 이들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고 인정받는다'는 생각, 돈 없고 뺨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것 없다는 생각, 일단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하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나타날 변화의 성숙한 향기가 아니라, 썩은 악취를 풍겨내는 것을 본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기 보다는, '내가 땀 흘려 모은 피 같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크다. 이러한 생각들이 형제간, 부모 자식간, 성도간을 세상 없는 원수로 만들고,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음날은 법정의 쌍방으로 만나 싸우는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돈 문제만 걸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영광은 고려하지 않은

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신전익(Before God)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님앞에서 본전 생각이 고사하고, 다윗처럼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에 그저 거룩한 안타까움만 가지게 된다.

물질에 집착, 신앙의 절망

물질의 손해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부자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결코 제대로 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양육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물질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성도의 물질생활은 그의 예배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 모든 부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것이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4:4-5>

드림의 축복, 지독한 사랑

"받았으니 드러라" 하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예물에 대한 신앙의 바른 관점이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중에 십분의 일은 내 것"이라고 하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분량을 정해주시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당신의 것인데,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욱 귀하고 좋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가 그저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세상 기복신앙에 머물지 아니

한 결과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헌금생활은 저들 자신의 신앙의 문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요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헌금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시간의 십일조, 물질의 십일조, 삶의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앞서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전 16:1-2)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며"(고후 9:7)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던"(고후 8:5)

헌금생활의 훈련, 사명, 헌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의 남편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프고 집에 들어와도 늘 계시던 분이 안 계셔서 마음이 허전하고 상실감이 큼니다. 남편 장로님이 죽은 후에 막연히 천국 가셨다는 것만으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의 죽은 후에 전개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성경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토론펀에서 장권사

죽음후의 영광

A: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외롭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남편이 죽은 후에 누리고 계시는 영광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24절을 보면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어디를 가셨습니까? 하늘의 지성소인 3층천을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신 3층천 즉 천국입니다. 그 영혼은 천사에 이끌리어 순식간에 대기권의 첫째 하늘을 통과하고 지구를 벗어나서 은하계 즉 둘째 하늘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조직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는 그의 신학난제 해설에서 이 하늘의 천국은 지구와 아주 멀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앞서간 성도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성도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승리한 교회(church, triumphant)"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늘의 천국을 히브리서 12:22-23절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 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군천사들이 있고 앞서간 성도들의 온전케 된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후 5:1절을 보면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육신의 죽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로님도 이 하늘의 천국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며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 1:20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영여성경을 보면 "to die is to gain"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죽으면 10분도 못되어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의 그 모든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계 21장을 보면 천국의 성곽은 벽옥 즉 다이아몬드도 되어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맑습니다. 성도들은 그 정금길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의하면 천국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함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시면서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왕 노릇하시다가 주님 재림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할 것입니다.(살전 4:14) 이런 천국에서 얻을 영광스러운 축복을 생각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임종 전에 롬 8:18절을 외웠습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죽은 후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편안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

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연출해 낸다.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별것 아닌 것같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아무렴, 주님이 당하는 수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신이 얼굴이 한번 뜨거워지는 것 정도는 새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겠는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림

교회에 드리는 헌물과 관련하여 '내가 피 땀흘린 돈으로 헌금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불행한 생각이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경우를 본다. 교회에 대해 사사로운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교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가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총성공의 마땅한 영광을 욕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이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말씀의 조명아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존재한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야 하고 물질을 모아야 하지만, '피 땀 흘려 번 돈'이라는 의식에 앞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즉, '피 땀 흘려 번 돈을 바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라

이 이 부분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목회가 잘되기를 바라고, 가능한 헌금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를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관문, 그러나 축복의 관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삶의 현실은 피폐하기 그지 없을 것인데, 그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신실한 성도의 온전한 예물생활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물과 예배자 자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다. 그 제물은 구별된 것이어야 하며 흠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었다. 제사에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레위기기를 조금만 읽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창세기를 보아도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열납하지 않으셨을 때 그 제사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더불어, 제사는 제물만의 문제가 아닌, 제물을 드린자 예배자가 함께 하나님께 드러지고 열납되어야 함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저된 제사와 제물을 알고 거부하신다. 그러므로 제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다 해도 그 중심부터 구별된 제물이 아니라면 일천 번제를 드려도 허사일

하고 성숙하며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십일조의 규례 등 제물 규정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방편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얼마나 축복하시기 위함인지, 이를 강제 규정으로 드릴 헌물을 정해두시고, 가난한 자이면 산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드리도록 하셨다. 육심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독하게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까지 하신다.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헌금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

제물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배가 실패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구약에서 본 바와 같이 가인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말라기 나오는 제사장들,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야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들의 제물이 그들이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과 축복된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물질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훈련을 위해, 헌금생활에 대해 많이 강조해야 한다. 교인들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음에 대

헌금생활도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과정 혹은 믿음을 갖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보았던 헌금에 대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될 때 헌신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헌신이 억지로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헌신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나, 죽지 못해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마땅한 사명과 의무가 존재한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사명의 포기이며, 사명에 담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한다. 사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명과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주의 교회와 복음의 요구에 대해 피 같은 물질뿐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제국주의 선교의 실체”

말레이시아는 영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국 제국주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한

사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56개 국가 들은 비록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영국 연방이라는 (Commonwealth

States)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독립 국가들은 그런 영국과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 혼연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직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은 재정적이고 의존적인 식민지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속 국가의 모습을 벗어 버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습니다만 영국 교회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교단적인 연결입니다. 영국은 19세기부터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들을 세계 전역에 보냈습니다. 영국이 가진 힘과 영국 교회의 선교적 열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당

시 영국 교회는 돈과 힘의 위력으로 무장한 식민지 정책과 선교 정책이 맞물려서 정부와 교회가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가지 못하고 서구 교회의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예배 형식과 신학이 전파되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를 흐려 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식민지 시절의 선교는 돈으로 건물 짓고 돈으로 패권을 잡고 평평거리며 교회 확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선교적 흑역사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식민 세력의 교회와는 독립된 새로운 예배, 사역과 선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서는 자신의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지역의 문화적 옷을 입고 퍼져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교회는 돈 없이 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전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 재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리고 현지에 재정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선교는 중단 없이 지속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재정으로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교는 중단되고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역들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선교는 돈이 아닌 사랑과 말씀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인 것을 서서히 확인하

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이나 행정력이나 위력으로 진행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신실한 사역자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그 일을 진행하고 영혼들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든, 선교사를 받든 모든 교회는 재정의 위력을 지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수한 복음이 퍼져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gy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최초 흑인 · 아시아계 · 여성 부통령... 이 제 새 기록 도전

카멜라 해리스(59)는 미국 여성과 이민자의 역사에서 '최초'로 기록된 긴 목록을 작성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사로 선출된 최초의 흑인



여성,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된 최초의 여성, 미국 상원의원이 된 최초의 인도계 미국인이다. 또 부통령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아시아계다. 그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이 된다. 해리스는 성별, 인종, 나이 등 여러 면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룬다.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고령의 백인 남성 간 대결이었던 11월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리스는 1964년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태어났다. 인도 출신 암 연구자인 어머니 샤말라 고팔란과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인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미국으로 이민해 UC버클리에서 만났다. 해리스가 7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고, 인도 문화와 깊게 접촉했다. 해리스는 워싱턴DC의 흑인 명문인 하워드대를 졸업했고, 1989년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오글랜드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청에서 지방검사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20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2022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해리스의 정치 이력에서는 두 명의 나이 든 남성의 기여가 눈에 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발탁한 데 이어 본인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그를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로 만들었다. 해리스는 2015년 숨진 대신 대통령 장남 보 바이든의 친구였고, 이 특별한 인연이 해리스가 부통령에 지명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리스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30살 연상의 캘리포니아 정계 거물인 윌리 브라운과 교제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흑인 시장이 되는 브라운을 배경으로 해리스가 급성장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상원의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심문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다른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통령으로서도 인상적인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다만 낙태권을 파기한 2022년 대법원 결정 이후엔 낙태권 제한에 반대하고 산모 건강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해리스는 유대계 변호사인 더글러스 엠호프와 소개팅으로 만나 2014년 결혼했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엠호프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퍼스트 렌들맨'이 된다.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앤디 비시아 캔터키 주지사,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시 쇼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주요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우선 꼽힌다.

치료제 · 백신 없는 니파바이러스...인도서 14세 소년 사망

치사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니파바이러스가 인도 남부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보전부는 전날 14세 소년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며 보건 경보령을 내리고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소년과 접촉한 약 20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들 중 약 60명이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당국은 소년이 살았던 말라푸람 지역 주민에게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과 병원 방문 자제 등을 요청했다. 감염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격리 병동도 마련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돼지고기 및 돼지 분뇨를 통해 전파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치사율은 40~75%다. 잠복기는 평균 5~14일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기면, 정신 혼란·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니파 바이러스가 2001년과 2007년 웨스트벵골주에서 각각 발생해 50명 이상이 숨졌다. 2018년 5~6월과 작년 9월에는 케랄라주에 발병해 각각 17명, 2명이 목숨을 잃었다.

日 '청년고독사' 경보... "도쿄 중심부서 3년간 742명"

일본에서 주로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고독사'가 10~30대 젊은층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행정 부검을 담당하는 도쿄도 검찰의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도쿄 중심부에 해당하는 23구 내에서 10~30대 742명이 고독사했다고 전했다. 고독사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따로 없지만 검찰의무원은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 자택에서 원인 미상의 사인이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고독사로 간주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고독사 사례는 15~19세, 20~29세, 30~39세로 연령을 구분했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30대의 경우 해마다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망 시점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3일이 248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나올 이상 지나 확인된 사례는 모두 305명으로 전체의 41%였다. 11~12건 중 한 건꼴인 64건은 한 달(31일) 넘어 발견된 사례였다. 검찰의무원은 고독사의 사인별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지만 742명 중 상당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젊은층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는 실재가 드러났다"며 사회와 관계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는 '자기 방임' 문제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 사이버 사고, 복구 몇 주 걸릴 가능성"

지난 19일(현지시간)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기반 컴퓨터 장애로 인한 항공·금융·의료 등의 서비스 대란은 사상 최악의 IT

사고로 평가된다. 사고 복구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대란에 대해 "영향을 받는 컴퓨터의 수는 아마도 이전의 모든 해킹과 운영 중단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역사상 최악의 사이버 사고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번 사고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IT 사고였으며 완전한 복구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MS 측은 "잘못된 사이버 보안 업데이트로 인해 윈도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디바이스 850만대가 영향을 받았다"며 "전체 윈도 기반 컴퓨터의 1% 미만"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먹통이 된 컴퓨터 기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일일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액세스를 위해 암호를 풀어야 하고, 10여 차례의 재부팅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영국 러프버러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앤드류 펙은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전 세계적 복구)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란이 IT 기술과 네트워크의 독점화·집중화 문제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웹페이지 이미지 하나만 중단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파일이 세계 최대 IT 집단의 원인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 IT 시스템의 취약성을 전례 없는 규모로 드러냈고, 수많은 조직과 개인이 소수 기술 회사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은 MS와 클라우드스트라이크에 이번 대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마크 그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IT에 얼마나 의존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의 결함이 경제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번 MS발 IT 대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이번 사태의 영향을 피해간 것은 미국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타스통신도 러시아 기업들이 지난 2~3년간 MS 시스템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대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테러 막자' 파리 올림픽에 AI, 전투기 등 총동원...사생활 침해 우려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가 경찰을 비롯해 군인과 AI(인공지능) 등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AI 등이 치안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일각에선 개인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일대에는 최대 4만5000명의 경찰과 헌병대를 비롯해 1만명의 군인도 배치될 것이다. 또한 개막식 개최 장소인 생강 일대에는 테러 방지를 위한 금속 검사기 설치돼 패스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내무부는 엄격한 인원조회를 통해 이슬람 급진주의자, 극좌·극우주의자,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등 3900여명에는 패스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랄드 다르마냥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테러 위협으로 간주되는 155명은 개막식과 경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경찰이 무기 등을 찾기 위해 이들의 집을 수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라팔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감시 드론, 헬기 등도 파리 하늘을 지킨다. 개막식 기간엔 파리 주변 150km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다.

지난 3월에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지능형 감시 시스템을 합법화했다. 이 시스템은 CCTV와 AI를 결합해 군중 밀집 등 위험요소를 감지한다.

다만 프랑스 내 시민단체는 CCTV와 AI를 결합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숙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동안 파리 올림픽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인 사카지는 AP통신에 "올림픽 보안의 범위는 억압적인 무기"라며 "도시와 국가의 모든 주민을 희생하면서 부유한 관광객들에게 한 달 동안의 축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나"고 비판했다.

징병제로 전환하는 유럽... 러시아 전쟁 확대 대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선이 유럽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유럽이 징병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CNN은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유럽인들은 유럽에 대규모 전쟁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징병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면서 "2년여가 지난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의무적인 군복무를 재도입하거나 징병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집을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의 로버트 해밀턴 유라시아연구소장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유럽에서 나타나면서 거머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나토에게 매우 긴박한 경고가 되었다"면서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을 조정하고, 군사 장비 생산 방식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인력을 모집하고 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트비아는 가장 최근에 징병제를 시행한 유럽 국가다. 라트비아에서 병역 의무는 2006년에 폐지되었으나 올해 1월 1일에 다시 도입됐다. 남성 시민들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징집된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나토 국가 최초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시행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4월에는 국방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징집 군인, 직원, 예비역 등 2만 명 이상을 군대에 추가하는 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덴마크도 올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남녀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리투아니아는 2015년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로 의무복무제를 재도입했다. 현재 3500~4000명의 18~26세 리투아니아 청년들이 9개월 동안 입대한다. 핀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은 상당한 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년에 약 7000명을 징병했고, 2025년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징병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화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지난 6월 자발적인 군복무를 제안했다.

CNN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나토 국가들의 징병제 전환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95. 허섭(1881-?)

허섭은 1881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23세가 되던 1904년에 두 살 적은 아내와 한 살 된 딸과 56세의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노동 이민선에 올랐다. 그해 2월에 그는 가족과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로마 알파벳으로 Hur Surp으로 그의 이름을 표기했다가 S. Hur로 소개했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하와이 노동 이민을 마치고 1908년 11월에 허섭은 가족과 함께 미국 북가주 새크라멘토(삭도)로 이주했다. 윤경학과 함께 그는 이관일이 운영하던 한인 여관을 사서 영업하였다.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 겸 교사

허섭은 가족과 함께 삭도에서 북가주 마운틴뷰로 이주하여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1911년 9월에 허섭 부인의 병환이 중한 가운데 이성민의 한인 여관에서 체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근 산호제 사립병원에서 치료 중의 약의 효험이 없어 향년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일찍이 불행 신사라 하니 만 리의 고흔됨도 비참하거니와 어린아이들의 정경이 측은하더라"고 신한민보의 보도였다. 그해 10월에 모친과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심히 어려운 중에 이성민이 그 상황을 분담하여 여가 아이 하나를 양자로 삼기로 하고 4.5인 한인 동포 앞에서 서로 맹세한 후 이성민이 아이를 데려갔다.

1911년 12월에 마운틴뷰에서 동남쪽으로 3마일 떨어진 씨니빌에서 김원섭이 125에이커의 씨나빌 농장을 시작하면서 에이커당 27달러로 빌려 300여 달러를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3,000여 달러를 수확 후에 주기로 하였다. 이 금액을 그가 혼자서 담당할 수 없어서 10여 명의 한인 동포와 동업하였는데 허섭도 이창호, 김성일, 정국신, 정국서, 임선봉, 이정규, 양국환, 박준화, 박준근, 한지상과 함께 동업하였다.

허섭이 1914년에도 씨니빌에서 농사하였다. 그해 2월에 가족이 있는 마운틴뷰에 갔다가 씨니빌로 되돌아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중상당하는 등 아내 잃고 고된 노동에도 그해 8월에 구원성이 씨니빌을 두고 읍은 시에 그가 감동하였을 것이다: "고은열굴속이고 아침이슬잔나뵈 수풀밑에숨어도 향내조차그길로."

상항 한인 감리교회에서 1915년 6월 26일 토요일에 미국 남감리교 태평양 연회 산하 동양인 선교부는 제1차 한인교회 지방 연회를 개최하였다.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인 허섭은 같은 교회 평신도 대표이자 권사였던 김원섭과 함께 참석했다. 그들 이외에도 황사용 전도사, 스타튼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성원, 삭도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찬일과 이응복, 상항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황사선과 강영성,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평신도 대표인 김필권과 임준기가 참석한 가운데 항구 선교사 이대위 목사가 개회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한 후 회부에 들어갔다. 북가주 한인 감리교회 사역에 관한 보고가 있고 난 뒤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대위는 지방 집사 목사로 안수받게 되었고,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임준기, 삭도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이응복과 양주은, 상항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황사선에게 전도사 기간을 연장하였고, 스타튼 한인 감리교회에 순회 전도사를 파송하기로 하였다.

새크라멘토, 스타튼 그리고 오클랜드의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선이 1915년 한인교회 지방 연회 이후 마운틴뷰

도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가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권사였던 허섭이 동포 권사 김원섭과 나누어 예배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해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는 세례 교인이 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7명이었다.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용의 1916년 보고에 새크라멘토, 스타튼, 맨티카, 오클랜드 그리고 매리스빌에 있던 한인 감리교회에 대한 통계는 있어도 마운틴뷰 한인 감리교회 통계가 없어서 그해 마운틴뷰 한인감리교회가 문을 닫은 것 같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허섭은 1916년을 전후하여 마운틴뷰에서 맨티카로 이주하였다. 그와 가족은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등록하였다. 그해 황사용이 순회 전도사로서 맨티카뿐 아니라 새크라멘토, 스타튼, 오클랜드 그리고 매리스빌을 순회 방문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전도하였다. 그해 스타튼과 맨티카는 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통계와 스타튼 한인 감리교회 통계가 합쳐서 보고되었는데, 그해 세례 교인은 16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그해 8월에 맨티카 노동 주선인이었던 조동호가 3,550달러를 갈취하여 몰래 도망하였는데, 그가 갈취한 돈은 한국인 30명의 공금과 필리핀인 2명의 공금과 여러 한국인에게서 빌린 돈도 포함되었다. 허섭이 그에게 60달러를 빌려주고, 그 외 빌려준 자는 강원서, 안중권, 손기보도 있었다. 도망친 조동호가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까? 허섭외에 조동호에게 돈을 빌려준 강원서, 안중권, 손기보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그달 29일에 국치기념일을 지켰다. 일동이 '무궁화가'를 부른 후 최능익이 기도하였고, 전폴린이 '정신가'를 불렀으며, 순회 전도사였던 황사용이 연설하였다. 허섭의 딸 허순복이 '대한국의 용병, 나가자'를 부른 후 누군가 연설하였고, 한영대와 김승현이 음악을 하였으며, 3명이 이야기를 한 후 마쳤다. '대한국의 용병, 나가자'를 부를 때 도적을 꾸짖으며 손을 들고 대병을 지휘하는 모습을 취한 허순복에게 만장시선이 모두 한곳으로 모였다. 다시 음조를 바꾸어 조국의 참상을 노래하여 반도 한국의 원통히 흐르는 피를 그려내면서 허순복이 하염없이 흘린 눈물이 옷깃을 적시었고, 목이 메어 노래를 마치지 못하였다. 50여 명 청중은 허순복의 노래에 흔들렸다. 대군의 뒤를 따를 생각이 물결일 듯하다가 참상을 그려놓아 일어나는 가련한 동포의 신음하는 정상이 완연히 눈에 보이는 듯하여 분하고, 아픔을 금치 못하여 일시에 눈물을 뿌렸고, 사람마다 분연히 일어나 무엇이든지 조국을 위하여 예비

하기로 작정하였다. 청중은 탄식하면서 14세 된 어린아이가 조국 강산을 구경도 못 하였는데, 조국의 비운을 슬퍼하여 저같이 눈물을 뿌리거늘 우리는 항일 활동을 점점 쉬니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모인 자들은 허섭에게 아이를 잘 가르쳐 우리나라 태산복두가 되게 하면 진실로 적지 않은 공덕이라 하였다.

1917년 2월에 허섭은 맨티카에서 우체국 사서함 177호를 열고 여관을 운영했다. 그는 그달에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맨티카만일 많은 곳인 줄 아시오리다. 본인이 이곳에서 여관하는 줄도 아시오리다. 올해에는 사랑회사도 한층 확장하고 여관 사업도 규모를 늘려서 무이 발일은 물론 사철 계속이요... 포도밭도 6, 7에이커를 계약하였사오니 일하시기 원하시는 동포는 어디로 갈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이러한 광고를 3월에도 냈다.

그해 여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의 교세는 세례 교인 54명에 학습 교인은 11명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임정구가 순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맨티카뿐 아니라 오클랜드와 스타튼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전도하였다.

그해 10월에 허섭은 신한민보 가족채 보상금 제9회 발기자로서 6달러를 기부했다. 다음 달에 맨티카 지방회가 내년도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임원은 대부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허섭은 부회장에 선임되었고, 그 외 임원은 회장 김필권, 서기 김계선, 총무 한치홍, 재무 김계선, 학무원 조문해, 법무원 방영관, 구제원 김성일, 대의원 김원택 그리고 실업부원 한상수였다.

1918년 3월에 발표된 맨티카 지방회 실업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단독으로나 동업으로 821에이커 무이농장을 경작하였는데 허섭은 320에이커의 농장을 단독으로 경작하였다. 농장 외에 맨티카 호텔 내 서양 식당이나 세탁업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해 11월에 신한민보 기계제작장 의연으로 제32회 동맹자에 가입하여 허섭이 5원을 기부했다.

1918년 여름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는 세례 교인이 56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5명이어서 작년보다 세례 교인이 5명 늘었고, 학습 교인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임정구 순회 전도사가 관리하는 오클랜드와 스타튼에 있던 한인 감리교회보다 세례 교인은 다섯 배 이상 많았다. 작년에 이어 임정구 순회 전도사가 맨티카를 비롯하여 오클랜드와 스타튼을 순회 전도하도록 파송 받았다. 그해 8월에 맨티카 교회 재무 김원택이 보고한 바로 허섭은 맨티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10월 50원을 헌금했다. 그해 5월에 허섭은 국민회의무금으로 5원을 냈고, 이듬해 5월에 독립 특별 의연으로 10원을 냈으며, 이듬해 8월에 국민회에 의무금 5원을 냈고, 다음 달에

독립 의연으로 20원을 기부하였으며, 그해 10월에 의무금을 또 냈다.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는 1919년 여름에 세례 교인 30명에 학습 교인 2명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열세였다.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

1920년에 허섭은 가족과 함께 다뉴바로 이동했고, 다뉴바 한인 장로교회에 등록했다. 그해 그 교회는 기도처에서 조직 교회가 되었다. 간도 참수금으로 10달러를 기부한 다음 달인 1920년 5월에 허섭의 모친이 향년 6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내에 이어 모친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허섭은 모친의 장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말씀을 신한민보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는데 그의 크리스천 믿음을 본다: "헛되고, 헛되고, 다시 헛된 이 세상에 처하여 있는 인생은 공연히 번거로움이 많아 양심을 흔드는 중 겸하여 천태만상으로 변함이 많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희락도 생기고, 어떠한 때에는 비참함도 생깁니다. 희락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영광스러우나, 비참함을 받은 자는 마음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아픈 것과 답답한 것뿐입니다. 고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슬픔과 감사함을 아울러 고하옵는 바는 만 리 지역에 외로운 몸으로 의지하고, 믿고, 모시고 지내던 죄생의 모친께서 토혈증으로 불행하게도 이달 초 3일 상오 8시 30분에 단축한 시간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시는 동시에 슬픔과 아픔이 앞을 가려 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으므로 원근간 여러 친구에게 친히 부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며, 따라서 초 3일 하오 3시 행사시에 수고를 생각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외로운 죄생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며, 영화스러운 영광을 돌려주신 수백명 사랑하시는 동포 전에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아내가 소천한 지 11년이 되던 1922년 12월에 허섭은 멕시코 부인과 재혼한 후 3년이 되던 1925년을 전후하여 캔자스로 이주하였다. 그해 3월 2일 오후 8시에 허섭의 사택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있었다. 한장호의 사회로 개회하고, 이동 애국가를 제창한 후 허섭이 기도하였다. 그 후 취지 설명, 김양선 등의 병창, 장병훈의 독립선언서 낭독, 김양선의 독창, 신태림의 축사, 장낙천의 독주가 있었다. 장낙천이 조국의 기근 구제를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후 모금하였고, 만세 삼창하고 폐회했다. 한장호, 최영익, 장낙천이 종일 준비한 한식을 먹은 후 서양식 댄스와 한국식 소리로 12시까지 즐겼다.

그해 11월에 허섭이 병을 얻어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자택에서 치료하다가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지 3주나 되어도 차도가 없었다는 신한민보의 보도 이후 그를 찾을 수 없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446-6202, www.bkcc.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월요일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영어예배(잠스/KDC, 킹덤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www.dk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전 1:30(수-금),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bethelchc.org / www.b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세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새벽까지 평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ls.org / worldchc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 장년노년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미니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Tel: (626)928-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역기도: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일/청년):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그네 교회: 오후 11:00 TE-동요부흥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3:30 목요 거리기도: 오전 9:00 TE-성경말씀(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I.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

'경건'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도록 지시하는 태도와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건은 참된 지식,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 받는 믿음, 부모에 대한 공경, 깊은 신앙심의 복종 그리고 송고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나서는 사랑을 포함한다. 기독교강요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어떤 분이시며 누구인가를 참으로 알 때에 그분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경건'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올바른 예배와 종교 지식과 삶을 설명하려고 했다. 칼빈은 그의 요리문답서 첫 번째 항에서 "참된 경건은 그 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이 있다"고 경건을 언급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그분에 대한 지식과 함께해야 하며, 이로써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 드리게 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현재와 최종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경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1. 언행을 통한 경건

1) 칼빈의 저서들에 나타난 '경건(pietas)'의 의미

(1) 칼빈 이전의 전통적인 개념

'경건'은 칼빈에게서 시작된 개념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로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용어이며 개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 속에도 존재해서 성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교부들과 거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에라스무스 등 많은 사람들은 경건의 개념과 의미를 논하기도 했다. 원래 고대세계는 종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들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사회들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중시되었는데, 이는 특히 가장과 가족들 사이를 묶어주는 유대를 중시하였으며, 그것은 거의 종교적인 것이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경건'은 우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여 따르는 품성이나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건이 가정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됨으로 그것은 국가와 국왕에 대한 시민의 경외와 충성이라는 덕목의 의미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고대사회는 다신교 사회로서 각종 종교들과 제의들이 발달했는데, 그 속에서 '경건'은 신들에 대한 숭배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칼빈이 이런 의미로 경건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1538년에 라틴어로 출판된 칼빈의 최초의 요리문답서

여기서 그는 경건(pietas)을 정의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기독교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의 전체적인 이해와 실천을 요약한 단어이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님으로서 두려워하

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라고 쓰고 있다.

(3) 「기독교강요」에서 경건(pietas)

칼빈은 간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으로 정의한다. 칼빈은 pietas 뿐만 아니라, religio라는 단어도 제시한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두려움과 관련된 신앙으로, 여기 나타나는 두려움 안에는 자발적인 경외감이 포함되며 그 경외감과 더불어 율법에 말하는 것과 같은 합당한 경배가 따른다" 이런 것들은 '신앙, 두려움, 경외함, 사랑, 지식' 등을 포함한다. 신앙과 두려움을 가진 종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와 사랑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함한다.

(4) 칼빈의 「서편주석」(119:78)

여기서 경건(pietas)의 참된 본질은 신자들의 두 가지 표징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첫째는 경외, 그분을 아버지로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둘째는 두려움, 그분을 주님으로서 섬기는 것,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5) 「예레미야주석」(10:25)

지식도 또한 경건(pietas)의 개념 속에 들어 있다. 칼빈은 하나님 지식(cognitio Dei)이 경건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invocatio)은 하나님 지식의 열매로 경건의 증거이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경건(pietas)에 이르는 첫걸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6) 「에스겔서에 대한 강좌」(18:5)

경건(pietas)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는 경외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정당한 삶을 누릴 때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youns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기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가정을 지키는 책임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는 책임감이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책임감은 배우자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할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책임감의 출발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책임감은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리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즉 한 남자의 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 때 '하나 됨'의 평안이 깨집니다.

남녀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만큼이나 다릅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남자는 시각적 욕구가 강하고, 여자는 청각적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노골적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이런 매일수룩 아내는 남편이 시각적 욕구가 강한 평범한 남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육체적인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내로서의 책임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일단 결혼을 하면 아내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에 대한 관심보다 자녀들 공부 가르치기에 전력투구합니다. 이 점이 남편들이 방향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내의 책임은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하나 되는 연습'입니다.

남편들의 책임은 먼저 아내에게 청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요?" 하고 다소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언제나 남편은 "그럼, 사랑하지. 난 당신만 사랑해"하고 몇 번이든 반복해서 말해주어야 여자는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당신 몇 번이나 말해 주어야 해? 그냥 좀 느끼면 안 돼?" 이러면 큰일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상하면 남자보다 더 크게 일을 그르칩니다. 남편 여러분, 날마다 아내의 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예쁘다"고 말해주고 "당신 정말 수고했어"라고 격려해주시시오. 여자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한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 일어난 일을 실감나게 말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세 번만 말해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가화만사성을 위해 "~구나, ~구나, ~구나" 세 번만 해보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하고 아내의 말을 자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청각의 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십니다.

요즘 얼마의 위치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빠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며, 자녀의 위치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비극과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성품법칙 'K. W법칙'을 소개합니다. K는 'Knowing', W는 'What I have to do'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책임감의 시작입니다. 'Knowing what I have to do'를 마음에 늘 새기세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려는 열정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동역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셨다. 그것을 창세기 18장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꼭 짚어서 선택하신 이유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하나의 인간일 뿐인 아브라함에게 굳이 다 시

시콜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 없지 않은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신다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실 일 아닐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하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을 동역,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 동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다. "필립안시의 기도"라는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소개한다.

한 목사님이 집에서 뒤뜰에 계단을 만드느라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었다. 돌맹이 하나만 해도 무게가 100파운드나 넘어가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운이 다 빠졌다. 큰 장비들을 요령있게 사용하는 일도 무척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곁에 있던 다섯 살 짜리 딸

아이는 자기도 돕게 해 달라고 떼를 썼다.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래를 불러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싫고, 직접 돕겠다는 것이다.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돌을 옮길 때 손을 올려 놓고 살살 밀게 시켰다. 물론 위험하지 않겠다 싶은 때에 한해서 말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딸아이의 도움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계단 공사는 훨씬 빨리 끝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마무리될 때쯤, 아빠는 새로 만든 계단은 물론,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뿌듯해하는 딸아이까지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다. 저녁 시간에 딸아이가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랑 아빠랑 둘이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맞장구를 친 것은 바로 아빠였다.

아빠의 입장에서 이것은 동

역이 아니다. 딸의 입장에서 동역의 마음도 들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역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 없다. 아니, 동역하지 않으시는 편이 더욱 수월하실 수도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려고 동역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역하고 싶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저 하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 하지 마세요',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멀리서 나를 도와주지만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시면, 주님과 동역하면 왠지 피곤할 것 같고, 내 시간도 방해받을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으니 까 말이다. 그러나, 주님과 적당한 선을 긋고 지내는 편이 나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역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최고의 선택이다.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wmclakim@gmail.com



인/터/뷰

이상목 목사 (이러리한장로교회 담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자"

지난 6월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개최했던 컨퍼런스에 이어 2024년 2차 컨퍼런스를 9월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안나산기도원에서 '복음과 성령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상목 목사. 그를 만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상목 목사

△금번 집회를 통한 목적이무엇입니까

"지난번 뉴욕과 뉴저지 컨퍼런스 주제는 성경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시세를 깨닫고 신부의 영성으로 깨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엔 성령과 구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인식이나 성경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구원관으로 인해 많은 가르침과 설교의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관과 마지막 시대, 다니엘과 계시록을 접목시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의 깨어있는 능력의 지도자가 되어 개인과 교회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하고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본 컨퍼런스의 특징을 소개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세미나와 달리,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과 깊이 친교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즉, 영성회복을 바라는 것이지요. 특히 주강사가 찬양인도, 말씀강해, 기도회 등을 직접 인도하고 시청각을 통해 풀어 갈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 사역자들을 서로 위로하며 주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라며 "말씀을 사모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컨퍼런스 스케줄은 첫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둘째 날 새벽 6시부터 식사시간을 제외한 밤 11시까지 계속 진행하며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컨퍼런스 등록비는 50불입니다. 2박 3일의 숙식과 간식 교재 등을 제공하며 뜻있는 분들의 도네이션도 환영합니다.

앞으로 집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상목 목사는 "10월 18일-21일까지 한국(경기도 광주)목회자 컨퍼런스, 11월 18일-20일까지 버지니아(Fair Fax VA)목회자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또한 조지아 아틀란타와 보스톤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이상목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KAPC)소속 목사로 미주 및 캐나다, 남미, 동남아시아, 한국 등 목회자, 선교사 복음과성령집회 주강사, 사모영성세미나 주강사이며 Zoe Ministries USA 대표, 펜실베이니아 이러리한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이상목 목사 연락처는 (814)602-5126, (카톡ID) erielee sangmok_lee@hotmail.com이다.

(이성자 기자)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2024 부흥성회에서 김기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2024 부흥성회

"뜻의 존재는 예수그리스도의 표상"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담임 권혁인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2024 부흥성회가 '뜻기와 함께 떠나는 은혜의 여정 "함께 빛어가는 현대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19일(금)부터 21일(

주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김기석 목사(청과교회 은퇴)가 강사로 나서 마지막 날 집회가 열린 21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집회에서 김기석 목사는 '생명의 회복자(

룻 4:3-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기석 목사는 "룻기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 버린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룻은 어머니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행복한 일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주친 자리가 거룩함의 자리이다"라며 "거룩한 자리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룻기에서 등장인물 중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등장인물이 의명으로 기록되었다. 그 의명의 사람의 생의 특성은 친척이 가난 때문에 자기 땅을 팔 때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하며 혼자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룻에게 청혼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정당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며 자신의 생명이 축소됨을 말했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남으로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기가 태어난 순간 룻은 텍스트에서 사라져버렸다"라며 "타자의 고통 속에 깊이 들어와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고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고 떠나는 룻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룻처럼 살 수 없지만,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누군가에게 복돋아 줄 수 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퍼져가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인사이드 아웃 2'는 불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1면에서 계속>

미래를 지향하는 불안은 부정적인 결과를 식별하고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은 우리를 높은 난간에서 조심히 행동하게 하고, 야생동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라일리가 불안의 도움으로 사춘기 생활의 위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일리는 여고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추측하고, 하기 주장인 벨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팀원들과의 어색한 출발을 만회하기도 하고, 모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죠.

하지만 인사이드 아웃 2는 불안, 심지어 '성공적인' 불안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라일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운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일이 잘못될지 미친 듯이 떠올립니다. 라일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내성'이 생겨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보고, 팀 동료와 코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특히 불안한 순간에는 자신이 너무 못해서 팀에서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상상하고, 1분 뒤에는 자신이 너무 잘해서 팀원들이 질투할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까지 잃었던 그녀는 코치의 개인 노트를 몰래 들여다보며 자신의 가치관을 배반합니다. 불안이 라일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더욱 미친 듯이 노력하는 동안 다른 감정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불안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승자 독식의 싸움을 멈추고 대신 불안이 라일리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강박적인 절망감이 지배하지 않고도 불안의 긍정적인 기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학생 중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격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치료, 성경적 상담, 약물 치료가 모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빌 4:6)는 말씀을 듣고서도 왜 불안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그리스어(매립나)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불안을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투옥, 난파, 굶주림, 목마름, 위험 등 다른 많은 어려움과 함께 묶어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개척한 교회에 대한 연민과 교회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매립나는 돌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돌봄' 또는 '관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려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며,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염려하게 됩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삶에 안주하며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세상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의 중대함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웃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들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복음의 확산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과 그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겸손한 기도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분개 자신의 노력을 맡기고 그분께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벧전 5:6-7).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라일리가 불안 증상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 심장이 두근거릴 뿐만 아니라 불안이 은폐하고 왜

곡하는 건강한 갈망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일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라일리는 팀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제 학생들에게도 그렇듯이 불안은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성격에 대한 불안은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부모의 수용에 대한 불안은 가족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러냅니다. 온라인 문화에 대한 불안은 소셜 미디어의 힘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한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커티스 장의 <불안의 기회>에서 그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는 사실을 관찰합니다.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으며, 감정을 회피하거나 진정하라고 격려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안한 자아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게 된 바로 그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적절하든 그렇지 않든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로 불안한 자아를 바라볼 때, 불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당한 순종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by J. Michael Jordan, CT

동부교계 게시판

MD 찬양부흥선교단, 찬양 부흥 축제

메릴랜드 찬양부흥선교단은 7월 28일(주일) 오후 5시 볼티모어장로교회에서 '처음 사랑 (계 2:4)'을 주제로 제 11회 찬양부흥 축제를 개최한다.

▲ 문의: 안응섭 목사 410-530-7579, 강장석 목사 443-631-1004

뉴욕살롬교회, 간증이 있는 찬양 콘서트

뉴욕살롬교회(담임 양미립 목사)는 8월 6일(화) 오후 7시30분 본교회에서 간증이 있는 찬양 콘서트를 개최한다. 출연진은 Cho's Family(조환근 선교사, 김정선 선교사, 조요한 Clarinetist, 강혜원 선교사)로 구성한다.

▲ 문의: 646-207-7525

뉴욕목사회, 원로성직자회 공동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뉴욕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 뉴욕원로성직자회(회장 한문수 목사)는 8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상철 목사 시무)에서 제79회 광복절, 건국 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문의: 917-682-4566

요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요셉장학재단(대표 장미은 사모)은 8월 5일(월) 오전 11시 쾨츠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에서 요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 문의: 917-733-7387

필라영생장로교회,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필라영생장로교회(담임 정승환 목사)는 8월 7일(수) 오후 7시45분 영생장로교회 제 1 예배실에서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 문의: 215-542-0288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 후원음악회

노숙인 섬김공동체 사랑의 집(이사장 원혜경)은 8월 17일(토)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 분당에서 사랑의 집 후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917-204-9879

ACE Youth & Young Adults(College) Retreat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는 8월 18일(주일)부터 8월 20일(화)까지 워싱턴 하늘비전 교회(담임 장재웅 목사)에서 박희성 선교사(MK/온두라스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유스 & 대학-청년부 수련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150불이다. (선착순 100명)

▲ 문의: 정병길 목사 (K.M : 989-971-2877), 장의기 전도사 (EM : 646-457-2027)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나라사랑 음악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김정환 이사장)은 8월 23일(금) 오후 8시 워싱턴 케네디 센터 카네기홀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티켓은 무료이며 예약되신 분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예약문의는 메릴랜드 이우정 목사 571-247-7557, 버지니아 성보영 목사 671-678-5104에게 하면 된다. 드레스 코드는 정장 및 비즈니스 드레스이다.

▲ 문의: 571-247-7557



완공된 캄보디아 벨엘국제학교 전경과 현지 학생들의 단체 사진

쾨츠장로교회, 벨엘국제학교, 그레이스 체플 완공예배 드려

“잘 짓고 잘 짓세”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반석, 예수

쾨츠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7월 20일(토) 오전 7시에 벨엘국제학교 완공 예배를 드렸다. 캄보디아 씨엠피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뉴욕에 위치한 쾨츠장로교회 본당과 연결하여 쾨츠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와 방문 중인 단기선교사들, 벨엘학교 교사일동들이 다함께 완공예배에 참여하여 새롭게 세워진 학교의 완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벨엘국제학교는 쾨츠장로교회가 캄보디아 현지 선교를 시작한 후 캄보디아 현지 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NGO 자격으로 유치원을 개교한 이래 2020년 2월에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까지 정식 학교 운영허가를 인가받은 후 쾨츠장로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마침내 완공에 이르렀다. 쾨츠장로교회의 캄보디아 사역은 현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기초로 지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계적인 아이들로 가르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노력을 통해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었다. 벨엘국제학교가 잘 세워 질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세워 질 수 있었다. 세상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물은 우리의 인생의 건물이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벨엘국제학교에서 캄보디아의 미래와 이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혼란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그동안 학교 건축을 위하여 힘쓴 분들에게 감사하며 KBT, 박효순 장로, 우영갑스님, 이일훈 선교사, 전성호 목사, 남형욱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쾨츠장로교회 단기선교팀의 특별 찬양, 쾨츠장로교회 교인 대표 차상남 장로의 기념식수 기금 전달, 이일훈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축하 순서에서 주향과 어린이 태권도팀, 벨엘 어린이 무용팀의 축하 공연, 캄보디아 교육국장 축하, 뉴욕주하원, 시의회 교류증서 전달 순서를 가졌다.

현재 초등학교인 캄보디아 벨엘국제학교는 11월부터 중학생을 받게 되며 장래에는 의사가 부족한 캄보디아에 고등학교 및 의과대학까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재상 기자)



주사랑장로교회에서 열린 피아워십 찬양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주사랑장로교회, 피아워십 찬양집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최성현 목사)는 7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진 '피아워십 찬양집회'를 통해, 찬양으로 드려진 예배와 기도의 향기로 교회당을 가득 채웠다.

이번 미국동부선교투어 중인 피아워십 찬양팀은 뉴저지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뉴욕주사랑장로교회, 쾨츠한인교회, 필라영생장로교회, 메릴랜드 벨엘교회에서 찬양집회를 이어갔다.

최성현 목사는 '너희에게 띄어 몇 개나 있느냐 (막 8:1-10)'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띄어 몇 개나 있느냐의 질문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의 질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피아워십 이동선 전도사는 "작년 무릎 수술 후 기절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후각과 미각을 잃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 엘리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받았듯이, 저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찬양한다"고 간증한 후 마지막 찬양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함께 부르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드린 헌금 전액은 피아워십 찬양팀에게 전달됐다.

(홍현숙 기자)



최창섭 목사 성역(담임목회)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후 사진 촬영했다

최창섭 목사 성역(담임목회)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안상준 목사)는 7월 21일(주일) 오후 5시 최창섭 목사 성역 45년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사역 해온 최창섭 목사를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감사하며 본 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했다.

최창섭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고백하며 “이제 목회의 일선에서 은퇴하지만, 죽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노기성 목사(뉴욕새예루살렘교회)의 사화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박진하 목사(뉴욕지방회 증경회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중창팀(단장 송윤섭 장로), 설교 문종성 목사(뉴저지침례교회), 헌금송 전향 목사 패밀리(전 세셋트리오), 축도 박태규 목사(뉴욕교협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문종성 목사는 '새 출발 (삼상 8:1-9, 9:16)'의 제목을 통해 “우리의 새 출발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이재홍 목사(공동담임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예식은 최창섭 목사 성역 45년 소개, 교회 원로목사 추대사 및 추대패 증정, 선물 및 화환을 증정한 뒤, 축복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종철 안수집사는 “최창섭 목사님은 진리와 도덕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사역하였고 은퇴를 받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시다. 최창섭 목사님도 사랑과 지혜로 함께 헌신했다”고 추대사를 전했다.

이어 정관호 목사, 유상열 목사, 장길준 목사의 축사와 한재홍 목사, 신석환 목사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모든 순서는 안상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늘기쁜교회, 시편 23편 사경회 개최

윤태호 목사 초청, “내 삶에 아쉬운 것 없습니다”

뉴욕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7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오후 7시 30분부터 “시편 23편 사경회”를 열었다. 강사는 청년사역단체인 JDM(예수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이다.

윤태호 목사는 첫날 시편 23편 1절을 본문으로 “내 삶에 아쉬운 것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둘째 날인 19일 저녁에서는 시편 23편 2-3절을 본문으로 “내 삶은 활력이 넘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인 20일(토) 저녁에는 시편 23편 4절을 본문으로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과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둘째 날 말씀을 시작하며 “본문은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삶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다”며,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삶의 목적, 친밀감 때문이다. 믿음은 설렘으로 설렘이 없으

면 신앙 증진이 없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는 일상의 삶으로 경험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낙심할 때 최고의 치료법은 주님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윤태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라: 김재상 기자)



왼쪽부터 김홍석 목사와 강사 윤태호 목사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l(Th.D)

2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40차 해외성회(240th Overseas Assembly)

1(월) 오전 1(월)~3(수)
미국(USA) 아틀란타 공화 도차
미국(USA) 아틀란타 2024 NYSKC FAMILY Conference
주최 : NYSK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서울),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뉴욕), 실무회장 이병환 목사(워싱턴DC) 동남부본부장 남궁진 목사(아틀란타), 준비위원장 김호열 목사(아틀란타), 대회장 김은목 목사(L.A), 학회실장 황도대 목사(캐나다 몬트리올), GTS 교수 전범수 목사(알래스카) 학생처장 이용화 목사(캐나다 몬트리올), 협회장 최기성 목사(뉴욕), 동남부본부장 손기성 목사(워싱턴DC), 남부본부장 기영철 목사(앨라배마), 선교사 손일석 목사(아틀란타)
장소 : 아틀란타 서양정교회(강호열 목사)
미국(USA) 독립기념일 행사
4(목) 미국(USA) Atlanta Prayer Center 성회 (아틀란타 우리기도원 원장 신사강 목사)
5(금) 4088 Sardis Church Reed Buford GA 1-405-777-0090
6(토)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노회장 김영민 목사) 교역자세미나 1-404-642-4233
미국(USA) 1부 오전예배, 2부 오전1시 Duluth 주성교회(김영복 목사) 1-404-648-4233
7(주) 1795 old peach tree Rd RD, NW Duluth GA 20097 인천공항 도착

9(화) 저녁 서울 Training Center Revival
10(수) 오후 황교안 비전전략(김사강 목사) 010-3621-3383
11(목) 저녁 천보선 기도원 (원장 옥광석 목사) 주최 : 국제예수교교회 (대표회장 임영술 목사) 010-9013-0693 (사무처장 임재영 목사) 010-6713-0388
12(금) 오전 안산 큰기쁨교회(김순희 목사) 주최 : 열방선교회총재 김홍희 목사, 대표회장 김순희 목사 010-7291-0291 K. Special Event Blessing
15(월)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한기여총)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6603-4997
16(화) 오후 헬렌시카도원 (원장 이영국 목사) 주최 : 글로벌부흥회 (대표총재 피종진 대표회장 정태원 목사) 010-2296-0675
17(수)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최옥순 목사) 010-2213-4448
1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김사강 목사) 010-8331-3431
21(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2(월) 저녁 파주 열린교회 (임은경 목사) 010-2473-8823
23(화) 오전 파주 천성교회 (이향원 목사) 010-9020-8893
23(화) 오후 인천 새빛교회 (우용석 목사) 010-9264-9843
현업사기도원 (원장 이영국 목사) 010-7404-8541
주최 : 글로벌부흥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010-2296-0675
구리 성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협 나라사랑 기도성회
엘리아기도원 (서재은 목사) 010-7142-2547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World 기독교총연합회 (대표교무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진안 임마누엘 생전수련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박복부 목사 010-4132-1191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0(8동) 101호 Fax. 02)401-7770

조명한 목사 신간 출판감사예배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조명한 목사(크리스천윌리 발행인)의 신간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 출판감사예배가 20일(토) 오후 4시 용수산식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명한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출판감사예배는 박은송 목사(엘피스사역원 대표) 기도, 소프라노 김에스터 찬양,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정명 목사가 '깨우치게 하는 자(사50: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21년전 크리스천윌리를 발행하여 이번 주까지(894호) 종이신문을 계속 냈다. 지구력,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조 목사는 '쓴소리 단소리'라는 칼럼을 계속 썼는데 도전과 위로를 주는 내용이었고 그 칼럼에 실린 내용을 모아 '자이언 캐년에서 눈물이 나다'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 출판감사예배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은혜받고 도움이 되

는 도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이 서평했다. 이상명 총장은 "언론인으로 한평생 걸어오신 조목사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셨다. 이 책은 도전을 주는 내용이 담긴 책이며 미국생활에서 알지 못한 정보를 알게 되어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첫째 읽는 재미와 함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교훈이 가득한 책이다. 둘째 이민자로 알아야 할 정보가 풍성하다. 셋째 언론인으로 교회와 사회의 문제점을 애정으로 다가가듯 따뜻한 담긴 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미니 시인(시전 동인)이 헌시낭송,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 축송, 이창민 목사(연합감리교 한인총회장)축사가 있었으며 조명한 목사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이 대통령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아가자”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회장 최학량 목사) 주최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이 18일(목) 오후 3시 아로마 5층 뱅콧룸에서 열렸다.

김성욱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추모식은 회장 최학량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1부 국민의례, 2부 예배, 3부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예배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가 '사명(행 22: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종용 목사는 "이승만 박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된 후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기독교국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제도를 도입하여 개신교 목사를 임용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또한 "이승만 박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조국을 위해 생명을 던졌

고 모든 것을 던지셨다. 1948년 첫국회가 개원되었다. 198명 의원이 모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국회가 출발했다. 이는 기적적이고 표적이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대한민국이 발전한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다. 이승만 대통령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아가갈 때 제2의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남회 회원들이 이승만의 노래를 부른 뒤 최영봉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3부 추모사 시간을 가졌는데 최학량 목사가 기념사했으며 LA 평통, 박정희대통령사업회, 미서부국가원로회, 만희코주복지회, 재향군인회, 해병대서부연합, 3.1여성동지회 등에서 추모사를 했다. 이날 추모식은 본회 회원일동이 만세삼창을 한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조명한 목사 신간 출판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OC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종규 담임목사, 엄영민 목사 부부, 유한호 캄보디아웨스트민스터신학교 전 총장 부부

OC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

“하나님과 십자가 보며 날마다 영생을 향해 가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엄영민 원로목사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예배를 21일(주일) 오전 9시 30분에 드렸다. 김종규 목사 사회로 열린 파송식은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영상 소개, 이 학교 총장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한 엄영민 목사의 선교사 안수, 파송 패 전달,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이자 2대총장인 유한호 목사 축사, 본교회 여성찬양대 축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재현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 김진용 장로 기도, 시온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엄영민 원로목사가 '생명의 길(시 16:5-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엄영민 목사는 "본 교회에 많은 사랑의 빛을 쬐다. 신학생시절 전도사로 부르셨고 부목사로 섬기게 했고 담임목사로 세워주셨다.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부족한 사역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격스럽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당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캄보디아웨스트민스터신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시편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첫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다. 둘째 생명의 길은 아름다운 길이다. 셋째 요동함이 없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은 영원한 길 부

〈박준호 기자〉



선교포럼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주최, 선교포럼 성황

크로스선교전략연구소(대표 송종목 목사)가 주최한 선교포럼이 지난 7월 13일(토) 오후 5시 30분 부에나 팍에 있는 파이 어사이드 홀 루터란교회서 열렸다.

본선교포럼은 총 4부로 진행됐다. 1부 예배 설교는 상영구 선교사(필리핀 민다나오)가 "예수님의 선교전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민 에스더 사모(Violinist)가 "은혜 아니면"을 연주 한 뒤, 정금태 선교사(파라과이)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조이스 송 사모가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진 뒤 3부 순서로 이희재 선교사(러시아)가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란 제목으로, 조이스 정 선교사(이스라엘)가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에 전쟁 중인 두 곳에 속히 평화가 그 들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 25,000여명의 한인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깔끔하고 유익하며 기쁨이 있는 포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포틀랜드영락교회 창립60주년 기념 부흥성회

“예수님의 용서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포틀랜드영락교회(담임 박성하 목사) 창립6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본교회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성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4일(주일) 11시에 열린 마지막 부흥성회는 이종기 장로가 기도했으며 지영옥 권사가 특송을, 호산나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김요셉 목사는 '아름과 요셉-신세와 은혜(창 50:15-21)'라는 제목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보디발의 종으로 일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은 성적인 유혹을 통해,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후 만난 가족을 용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자가 있는가?"라고 질문 한 뒤 "용서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혜와 힘이 아니다. 유일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에는 용서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요

셉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자가 있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박성하 목사가 찬양 인도 후 김요셉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포틀랜드영락교회 부흥성회에서 김요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의 빛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 Martinez 시에 위치한 은혜의 빛 장로교회(KPCA교단)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장로회 정규 신학대학원(M.Div) 또는 총회(KPCA)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5년 경력(목사안수 후 부목사, 담임목사, 선교사 경력 포함)을 가진 이중언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함이 없는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 설교 동영상 2편이상, 추천인 연락처(목회자 1명, 평신도 2명)등이다. 모든 서류는 8월31일까지 제출(LGKPC pastorsearch@gmail.com)하면 된다.

▲ 문의: pastorsearch@gmail.com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세계한인기독교연립협회(회장 임승패 장로)가 주최하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을 모집한다. 대상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이며 추천도서 7권 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다. 제출처는 이메일(wkcmmailbox@gmail.com)이며 제출마감은 10월31일 오후 5시(미서부시간 기준)이며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15일경 발표하며 시상식은 12월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단 이미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의: wkcmmailbox@gmail.com

예수동행교회 가정세미나

예수동행교회(담임 안정섭 목사)는 가정세미나를 27일(토)과 28일(주일) 양일간 기독교가정상담가인 권수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갖는다.

▲ 문의: (818)366-0089

월서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이영성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28일(주일) 오후 12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323)931-9133

LACS 제16회 정기연주회

LA 크리스천 싱어즈(LACS·단장 문혜원)가 제16회 정기연주회를 라카나다 장로교회(626 Foothill Blvd, La Canada)에서 27일(토) 오후 6시 개최한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미진, 김소현, 박은미, 양유진, 문혜원, 크리스틴 오, 크리스틴 정, 테너 오정록, 심요셉, 오위영, 최원현, 바리톤 권상욱, 김정호, 베이스 류정삼 등 성악가들과 피아노 남현선, 윤경미, 첼로 박수정, 바이올린 박희선 등이다. 티켓은 30달러이며 온라인 구매와 당일구매도 가능하다. (https://www.eventbrite.com/e/952085733057?aff=oddtcreator)

▲ 문의: (213)453-8690

선한목자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예배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창립 49주년 기념예배가 28일(토) 예배시간(오전 7시45분, 9시 10분, 오후 12시, 오후 1시45분)에 거행된다.

▲ 문의: (909)591-6500

2024 세미한 장학회 장학생 선발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의 세미한 장학회는 2024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이며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scholarshipseminhan@gmail.com)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25일(주일)에 갖는다.

▲ 문의: (972)446-0178

제24회 Phos 선교후원음악회

제24회 Phos 선교후원음악회가 7월 27일(토) 오후 5시 세인트마크 성공회(600 Colorado Ave. Palo Alto, CA)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첼로 홍세라, 피아노 마키코 오카가 출연하며 모금된 후원금은 모두 정혜림 선교사가 니제르에 새로 시작하는 임마누엘 남자중학교와 마라나타 간호학교의 태양열 전지판 설치에 사용된다.

▲ 문의: contact@cellistsarahhong.com



Well Mission 디즈니 홀에서 기금모금 연주회

울타리 선교회(Well Mission, 대표 나주옥 목사) 기금모금을 위한 연주회가 지난 7월 21일(주일) 오후 7시 월트 디즈니 홀에서 열렸다. 이날 첫 무대를 장식한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은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브린디시' 등을 무대에 올려 감동을 받았다. 이날 연주회에는 LA 신노니에타(지휘 김용재)를 비롯하여 소울 가야금 합주단 등이 참여했다.



술·자살 중독 이겨낸 간증...복음으로 치유하는 청소년 캠프

성경적 세계관 따라 중독 끊기로 결단한 청소년 세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에 이민을 갔고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다. 술로 슬라우마를 이기기 시작했고 결국 술중독, 자살 중독까지 이어졌다. 모태신앙으로 청소년 시기에 매번 수련회도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23일 신지아 리빌더처치 전도사가 ‘청소년지저스아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중독자로 살던 삶을 간증했다. 그는 “중독문제로 뇌에 문제가 생기고 난독증까지 생겼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중독을 끊게 됐다”고 고백했다. 간증을 들은 청소년들은 강대상 코앞까지 나와 무릎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청소년지저스아미’가 열린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 대성전이 찬양 반주와 참가자들의 기도소리로 가득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27차로 개최한 ‘청소년지저스아미’ 여름 캠프는 90개 교회에서 온 500여 명의 참가

자가 모인 자리다. 신 전도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호 12:5-6)’를 주제로 “중독을 끊으려면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전했다. 신 전도사는 남편인 강철민 강도사와 리빌더처치를 개척했고 다음세대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마약, 스마트폰 등 청소년 중독 문제를 주제로 한 전문강사들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현섭 목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은 물론 도박, 인터넷 등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조 교수는 “청소년기의 발달은 5가지로 신체, 사고력, 정서, 도덕성, 사회성의 발달”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균형 있는 성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독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와 부모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복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윤정 아신대 신교대학원 교수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마음을 지키는 자신만의 ‘거룩한 루틴’을 세워야 한다”며 실제로 자신이 보내는 ‘거룩한 루틴’을 소개했다. 소 교수는 하루 1시간 기도와 3장 말씀 통독은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찬송을 듣고 성경 앱을 열어 ‘오늘의 말씀’ 카드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다. 캠프에서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겠다고 결단한 최예은(16)씨도 있었다. 파주예림교회(홍석운 목사)에서 온 최씨는 “캠프기간동안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 때문에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온종일 예배와 찬양, 암송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났다”며 “강사님들이 말씀해주신 핸드폰 시간제한, 인터넷 사용 조절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지저스아미 디렉터인 홍성주 목사는 “청소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지식에까지 새로운 열매를 맺길 바란다. 영적인 치유를 통해 모든 죄와 중독에서 자유해져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녁 집회에서는 찬양팀 포에버위십의 찬양 인도, 홍중철 세화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청소년지저스아미는 2012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씩 캠프를 진행해왔다.



변아웃 시달리는 목회자 위해 ‘쉽’을 제도화하자

54% 무기력·피곤 호소 불구

목회자도 때론 쉬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목사의 쉬는 유독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목사가 주일에 쉬는 게 말이 되냐’는 인식도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데 한몫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목사들은 며칠 휴가를 가는 것조차 교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입법에 꺼내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목사의 쉬는 사치가 아니라 새벽기도를 비롯해 수요·금요기도회와 주일 2~3차례 설교가 한국교회 목회자의 기본적인 사역이다.

여기에 심방과 혼인·장례 집례 등이 더해진다. 수시로 교인들의 상담 요청도 있다. 시골교회 목사들은 농번기에 마을 농사까지 돕는다.

실제 국내 목회자 중 절반 넘게(53.6%) 무기력증이나 답답함·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들은 ‘무기력하다(21.2%)’·‘답답하다(16.5%)’·‘피곤하다(15.9%)’고 답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순천노회(노회장 박병준 목사)는 ‘단독 목회자 안식

일 제도’를 명문화했다. 단독 목회자란 부교역자 없이 담임 목사 홀로 목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신설된 제도를 통해 그동안 목회자 24명이 한 달 동안 쉬는 연었다. 노회는 선정된 목사에게 개인 여비도 지급한다. 휴가 기간 중 설교할 목사도 임시로 파송한다. 주로 노회 소속 은퇴목사나 기관목사 등이 대신 강단을 지키는데 노회는 이들에게도 사례를 한다. 박혜운 동행교회 목사도 이 제도를 통해 급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박 목사는 “지방의 단독 목회자는 교회를 비우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나만 하더라도 교회 물탱크 수리를 하는데 올라갔다 미끄러지면서 얼굴을 다쳤는데 안식일 제도를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쉬는 통틀 목사가 회복하면 혜택을 보는 건 교인이다.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도 최근 국민일보 자료위원회에서 “목회자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기사가 나간 뒤 실제 목회자의 쉬에 대한 여론이 바뀌는 걸 느끼고 있다. 기회가 닿으면 교단 총회에서 입법 제안도 하고 싶다”고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은혜로운 어린이 찬양팀, 교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다

‘내 나이가 어때서.’

다음세대가 찬양 인도자로 나선 뒤 예배가 살아난 교회들이 내놓은 기치는 “믿음에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취학 전 아이부터 중·고등부 학생까지 참여하는 찬양팀들이 교회 부흥을 이끌어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새로운에 마본교회(김필환 목사)에서는 네 살짜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하는 다음세대 찬양팀 ‘홀리킹워십’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교회학교 예배 때 찬양 인도자로 서는 것뿐 아니라 장년예배 찬양 인도도 도맡아 하고 있다.

전체 교인 100여명 중 절반 가까운 50명이 홀리킹워십에 속해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김필환 목사는 17일 “15년 전 교회를 시작하면서 찬양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홀리킹워십은 7000여명이 출석하는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청년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한 경험은 물론이고 여러 지역교회도 찾는 찬양팀이 됐다.

찬양팀원 중 최연소는 올해 4세가 된 이동하 어린이다. 어머니 이주현(39) 집사는 동화임신 중 임신중독에 빠졌고 결국 2kg의 미숙아로 출산했다. 이 집사는 “동화가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기도 응답으로 여드레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나

왔고 3개월 만에 정상아 체중을 따라잡았다”며 “이렇게 태어난 동화가 찬양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게 된다”고 했다. 어린 팀원들이 찬양팀을 섬기며 은혜와 기쁨도 주지만 이들이 무대에 서기까지는 매주 두 차례 2시간씩 연습하고 아침마다 신앙훈련을 하는 노력



다음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길러내기 위한 성교육은?

‘성경적 성교육 캠프’ 열며 다음세대와 부모세대 교육 나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과 36주된 태아의 낙태 영상 파문 등으로 성경적 성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카도쉬아카데미(공동대표 이재욱 목사, 최경화)가 여름성경학교 시즌을 맞아 다음세대에 성경이 말하는 성 가치관 교육에 나섰다. 카도쉬아카데미는 지난 19일과 20일 인천 서구 청라온해교회(김진우 목사)에서 ‘거룩한 세대에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적 성교육 캠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카도쉬아카데미에 따르면 캠프에서는 성경적 성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소그룹 강의 등이 진행됐다.

이재욱 목사는 “시대적으로 문란한 성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존 질서 파괴, 전통적인 윤리체계의 붕괴, 미디어를 통한 급진적인 문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다음세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일이 시급하다”며 캠프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이 목사는 “최근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비롯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영상이 올라온 사건 등 이 사회의 끔찍하고 어지러운 일



고양시민·교계, “신천지의 종교용지 변경 절대 반대”

다음 달 20일 고양시와 신천지 측 용도변경 관련 소송 앞두고 거리행진

경기도 고양시 교계와 시민들이 거리행진에 나서며 지역 내 신천지 시설의 용도 변경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고양시위·비상대책위원장 김정식 목사)가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에서 ‘제2차 이단 및 사이버 시설 반대(종교용도 변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와 시민 600여명(추계 측 추산)이 참석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

는 가운데 광장에 모인 이들은 우비를 입고 ‘신천지 OUT(아웃)’이라고 적힌 전단을 손에 들었다. 이어 “고양시민은 신천지를 끝까지 반대한다. 고양시에서 물러가라”며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포기하라”라고 외쳤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일산동구 풍동에 매입한 건물을 종교 용지로 용도 변경해 지역사회로 들어오려 한다고 보고 법원과 고

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세대는 이러한 문화의 영향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다음세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세대들에게도 이를 어떻게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할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고 전했다.

현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성 있는 교육이 절실한 한국교회에 이번 캠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일례로 최경화 공동대표는 이번 캠프에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전했다. 최 공동대표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쓸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게 된다”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었다. 이어 선악과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해주며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들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왔다. 강의에 이어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진 학생들은 1시간 30분 동안 소그룹 모임을 통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시청에 이를 막아달라고 했다. 고법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 인천지와 고양시청 간의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일산동구 풍동 158번지에 들어선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건을 고양시청이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며 제소했다. 고법위는 이에 이날 성명을 내고 “100만 고양시민은 고양시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며 “우리는 사이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AI·세속화 시대 속 크리스천에 필요한 가치관은?

‘2024 노아 NCA 콘퍼런스’ 22~24일까지 진행

조별로 나뉜 다양한 연령대의 참석자들이 신자로서 지켜야 할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지 세대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점점 세속화하는 세대 속 각자의 고민을 나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찰했다. 22일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2024 노아 NCA 콘퍼런스’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대학생 등 청년세대부터 기성세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1세기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라’라는 주제 아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 가치관, 북한·통일 선교, 이주민 선교, 청년선교, 모슬렘 등에 관한 강연을 듣고 그날의 강연 내용을 되새기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콘퍼런스를 기획한 권요한 선교사는 “콘퍼런스에서는 ‘복음주의의 청년선교’ ‘개혁주의 기독교 지성’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라는 세부 주제를 고찰한다”며 “선교 2세기를 맞은 한국교

회의 새로운 세대가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사도교회의 믿음을 계승하는 동시에 반신적 세속주의를 극복하도록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시대 크리스천이 정립해야 할 정체성과 소명의식에 관한 강연도 이어졌다.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이 몰고 온 인류혁명 시대, 성경적 의미와 크리스천 사명을 주제로 기초 강연 나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인류 혁명 시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성, 영성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 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영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고 전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제10차 KWMC 대회를 돌아보며 (1)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500여명의 선교사, 1500명이 등록하고 참가하여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팬데믹으로 주춤거리는 미주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 열정을 회복하고, 포스트 팬데믹 선교를 위한 창의적인전략을 개발하고, 네트워크하며, 선교후보생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표로 모였다. 모든 프로그램을 그 방향에서 준비하고 강사들을 초청하고 선교전문가들이 사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며 대회에 참여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부터 대회에서 받은 은혜와 논의된 내용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를 것인가가 진정한 대회의 열매가 될 것이다.

대회의 프로그램은 세계의 주제로 준비되었다. 첫째로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과 둘째로 교회의 진정한 동역, 셋째 순전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을 하기 위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첫날 대회의 개회는 믿는 유대인인 로버트 웨인거가 선창을 하고 10명이 함께 빨라팔 (쇼파르)을 부는 것으로 개회 예배를 시작하였다. 쇼파르를 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나아가는 의미로 개회 예배를 준비한 것이다. MK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팀은 1세대 들 만의 선

교대회가 아닌 세대를 아우리는 선교대회임을 보여주었다. 개회선언은 선교사에게 드리는 헌시와 함께 고석희 2대 KWMC 사무총장이 선언하였고, 개회 예배 설교는 이승종 목사, 그리고 박은성 목사의 성찬식 집례에 따라 팬데믹으로 변화된 일회용 포도즙과 전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였다. 특순으로 네팔의 유명 전통음악 가수인 안주판타의 네팔 멜로디와 가사의 찬양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선교대회임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이어 주제발표는 비서구권 교회들의 선교운동을 섬겨오 김앤드류 선교사가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선교현장과 비서구권 선교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용중 사무총장은 삼박사일 대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소개함으로써 주제발표를 마쳤다. 저녁 식사는 1,500명의 식사를 케터링으로 가져와서 남가주사랑의교회 봉사팀이 정성껏 도시락통에 넣어 배식시간을 절약하고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준비하였다. 마련된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영적 축제의 저녁이 시작되었다. 시간 시간 남가주사랑의교회 간식팀과 커피봉사팀의 섬김을 받은 참가자들은 긴 여정의 피로를 풀 수가 있었다. 저녁 시간의 시작은 축제의 시작과 같은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God's Image 청소년들의 활기 넘치는 무대는 주눅든 세대가 아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젊음을 느끼게 하였다. 첫날 저녁은 베델교회의 찬양팀이 은혜의 찬양시간을 인도하였고, 팬데믹 기간 많은 한국

성도들에게 “은혜” 찬양으로 큰 감동을 준 지선 전도사의 특송으로 저녁은 더욱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첫날 저녁 두 선교사의 “선교사 이야기” 시간은 모슬렘 지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현장의 보고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안양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의 성령의 권능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명에 대한 메시지는 깊은 회개와 감동의 시간으로 이끌었다. 메시지에 이어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1500명의 등록자들과 열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물려온 성도들의 가슴을 진한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9일 아침은 6:45부터 시작되었다. 두 호텔에 머무는 참가자들은 제공되는 버스를 타고 아침 집회에 참석하였다. 새벽기도회가 아니라 아침 집회로 변경한 것은 그만큼 큰 비중으로 다루겠다는 의도였다. 첫날 아침의 메시지는 김한요 목사의 “앗, 속았구나” 제목의 말씀을 선포되었다. 한번 맺은 언약을 변경함이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을 때에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아침식사는 새벽 일찍부터 봉사하며 섬기는 남가주사랑의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따뜻한 우동으로 마치고 아침 주제강의 시간을 시작하였다. 첫 주제강의는 강준민 목사의 선교 영성에 대한 강이었다. 선교를 선교 담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영성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함을 깨닫게 하였다. 둘째 시간은 MK로서 UN 식량기구전문연구원으로 로마에서 근무하는 김혜구 박사의 강이었다. MK로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들, 그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빈곤퇴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오늘날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대해 나누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서 조용중 KWMC 사무총장의 사회로 세계한인선교사회 (KWMF) 의 방도호 회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의 강대흥 사무총장이 건강한 선교협력의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둘째날의 주제인 교회의 진정한 동역을 위한 기구들의 대표로서 어떻게 함께 협력할 것인가를 나누었다. 말씀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이 어떻게 신앙성경에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양성일 목사가 강해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점심시간에 눈을 돌려 42개의 전시부스가 설치된 체육관과 광장을 둘러본다. 다시 돌아와 자세히 보리라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러 들어간다. 22개의 강의실로 나뉘는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대회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져 있어서 본당에서 킴덤터림센터로 버스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리 대회 전에 선택한 전문영역이나 일반영역의 강의를 찾아 나선다. 대회의 꽃이라 여겨지는 전문영역별 트랙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오후시간은 모두가 흠뻑 젖어 18개의 전문영역 트랙이 운영된다. 전문영역별 트랙은 이틀동안 8시간을 같은 주제의 영역별 강의와 토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하여 각 영역별 코디네이터가 임명되었고, 코디네이터는 일년동안 전문분야의 발제자들을 섭외하고 줌으로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트랙을 운영할 것인가 토의하고 준비하여 대회에서 모이는 것이다. 어떤 영역은 예상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 진행되는 모습도 보이고, 어떤 영역은 의도보다 약간 부족한 부분도 보였지만 전체의 진행은 참으로 좋았고, 이렇게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는 평들이 많았다. 처음 만나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두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뜨겁게 진행된다. 사전에 참여할 영역의 트랙을 선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 강의실 배정이 어려웠음을 겪었다. 각 트랙마다 참여하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한정된 강의실을 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그래도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대회를 할 때 보다 강의실의 한계가 있는 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회 마다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하나도 제외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을 다뤄야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해에 신실한 크리스찬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항공선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항공선교는 오늘날까지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Nexus 라는 항공선교를 위한 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기도 하였고 한 국교회가 감당할 책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는 미디어, 온라인 선교가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더욱 세분화 하여 문화, 예술 영역, 온라인 미디어 영역, 기술과 선교의 영역으로 인하여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선교가 좀 미팅을 통하여 대회에서 모이는 것이란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

교육 선교 영역에서는 선교현장과 신학교육에 대해 전 총신대 총장인 김의원 교수, 엘리트 선교사 자녀교육은 몽골에서 참여한 정엘린 박사, 선

교지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전략에 대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명예교수인 김정효 교수, 선교현장에서의 성경적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에 대해 30년간 선교사 마을 건설 프로젝트에 헌신한 예교영 선교사가 발제하고, 무엇이 기독교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가? 라는 주제로 칼빈대학 조은섭 교수의 강의와 카자흐스탄 국제학교의 양선나 교장이 기독교 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허은영 선교사의 교육 선교의 시대적 도전의 발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강의와 발제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교육의 현장과 특별히 MK 교육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전문트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선한 영향을 미치고 (impact), 포용하며 (embrace) 세상을 변화 (transform) 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 또한, 기독교적 교육을 교실 내외에서 실천하여 학생들이 성적,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육선교사가 되길 헌신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기관선교 영역에서는 특히 교도소 교정사역을 전문으로 섬기는 국제 교도협회의 곡성훈 대표, 오네시모 교도소 사역을 감당해온 김석기 목사, 세계십자가선교회의 안일권 목사, 청년선교 본부장으로 섬기는 박성민 목사가 강의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선교트랙에서는 “기관선교의 교정사역, 중동 사역, 군 선교, 캠퍼스 선교 등에 하나님의 강한 열매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이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한다. 우리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며 이 일에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결의하였다. 군복, 고복, 원복 등의 체플린 등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많은 기회가 있음에 대해 더욱 넓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dr.yongcho@gmail.com

C.S. 루이스와 문학적 성경읽기 (I)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C.S. 루이스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문학 교수를 지낸 영문학자다. 게다가 그는 평생 글을 읽고 쓰는 작가로 살았다. 그가 회심한 후에 영문학자와 작가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런 C.S. 루이스의 눈에는 성경비평가들이 성경의 문학적 특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성경을 비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비평가들이 성경의 고유한 문학적 특징도 모르면서 성경을 탐대로 비평하는 것을 문학적 상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루이스는 성경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음식으로 말하면 메뉴가 다양하다. 성경에는 시(詩)도 있고, 보고문학(報告文學)도 있고, 역사(歷史)도 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장르를 같은 방식으로 읽고 해석하

는 것은 문학적인 몰상식으로 보았다.

C.S. 루이스는 ‘시는 시로 읽고 역사서는 역사서로 읽어야 한다. 이것은 불어는 불어로 읽고 영어는 영어로 읽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성경비평가들이 성경의 문학적 특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읽고 성경의 오류를 비평하는 행태를 루이스는 “천박한 무감각”이라고 비난했다.

C.S. 루이스의 성경관을 연구한 드루대학교 (Drew University)의 교수인 크리스텐슨(Christensen) 박사는 C.S. 루이스의 성경관이 독특하다고 강조한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루이스의 성경관을 <문학적 영감론(Literary Inspiration)>이라고 불렀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루이스는 성경을 영감된 문학의 모음으

로 보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크리스텐슨 박사는 C.S. 루이스가 성경에 등장하는 문학적 요소들(이미지, 상징, 신화, 그리고 은유 등등)을 영적 실재의 구체화로 보았다는 것이다. 즉 이런 문학적 요소는 하나님 계시(Divine revelation)의 전달 수단(vehicle)이었다. 성경을 문학으로 읽어야 한다는 루이스의 말은 성경의 문학적 특성을 인정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문학이라는 C.S. 루이스의 주장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과격하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 성경이 메시지를 담은 문서라는 점에서 문학이다. 루이스의 주장대로 성경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문학을 장르별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시를 소설처럼 읽는다고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지만, 시를 소설처럼 읽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C.S. 루이스는 성경을 일반 글과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일반 글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비평적 읽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루이스가 “건전한 비평적 읽기”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텍스트에 집중하여 성경의 다양한 문학적 형태들과 그 해석학적 함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에서 독자들에게 성경에 흠뻑 빠지라고 권면한다. 성경을 읽는 독자가 성경의 논조나 기풍에 흠뻑 적시고 성경의 스토리가 전해주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경의 문장과 구조 그리고 성경의 문학적 향취에 흠뻑 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C.S. 루이스는 주장한다.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무슨 의미일까? 루이스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적용해 본다. 첫째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문학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시편을 읽으며 시를 즐기고, 사무엘상, 하를 읽으며 이스라엘 역사와 사무엘, 다윗 등과 같은 인물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순예보>를 읽을 때 최문선과 윤명희를 만나고, 그 둘의 사랑에 푹 빠진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문학적 성경 이야기기에 몰입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

나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 전제 때문에 성경 문학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문학적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려는 목표를 정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경을 권별로 읽지 못한다. 성경 완독의 목표를 위해 독자 편의대로 성경을 끊어서 읽으면 성경의 장르를 무시한 성경 읽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의 장르를 무시한 채 읽는 것은 성경이 문학이라는 기본적 사실의 몰각이다. 해밍웨이의 소설에 이어서 워즈워스의 시를 동일한 장르로 읽지는 않는다. 워즈워스의 시를 읽다가 같은 시선과 기준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지도 않는다. 시편은 시답게 읽어야 한다. 서신은 서간문학이다. 당연히 편지를 읽듯 서신서를 읽어야 한다.

셋째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째로 읽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성경을 거시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심정전을 읽고 심정의 작은 행

동이나 짧은 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심정이 어떤 인물이며 행하는 일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의 메시지와 등장인물의 스토리를 주목하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끊어서 읽고 세부적인 정보나 메시지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우리는 성경의 짧은 구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의 구절과 단락을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지엽적으로 접근하여 성경을 곱할 위험이 있다. 몇 구절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 각 권 전체가 주는 메시지와 교훈에 집중해야 한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며 적어도 문학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했다. C.S. 루이스처럼 문학적 식견이 탁월하지 못해서 온전한 문학적 성경 읽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문학적 성경 읽기를 실천하며 쏠쏠한 재미를 누린다. 특히, 시편을 시로 읽으며 누리는 기쁨이나 서사(Narrative)를 읽으며 전체 스토리를 즐기고 거대 담론에 주목하는 것이 소덕이라면 소덕이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주님의 말씀 (눅 19:39-44) 찬 201장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 때 예루살렘이 원수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을 보고 살아야 한다. 죄 안에서 어둠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실상을 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무너진다. 사망의 세력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사는 실상을 알고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며 살아야 한다. 장차 나타날 사건을 백성들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실상을 보고 살아야 한다.

화 영생을 누리라 (눅 20:34-38) 찬 330장

이 세상은 나그네의 세상이다.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다. 오는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살아 있다. 죽은 자는 아무도 없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곳에 살 때도 영원히 사는 자로서 영생의 생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육신에서는 영생을 거절한다.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 오고 있는 세상을 알고 준비하라. 멸망으로 가는 길로 살지 말

라. 영원한 죽음 안에서 사는 길로 가지 말라.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자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로 구원을 주신 것이다. 영생으로 사는 자로 거듭났으니 생명을 누리 고 살아라. 총명한 생명을 내게 풍성하게 부여 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권능의 영광을 누리라.

수 어둠에 사는 자 (눅 20:45-47) 찬 492장

어둠에서 사는 자들의 삶은 영원이 보이지 않는 자의 삶이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대접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죄 안에서 죄를 누리고 사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없고 자신 만 있으며 자신이 우상이고, 주인이다. 심판주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다. 자신

이 어둠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장차 자신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다음 세상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로 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엄중한 심판이 주인으로부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산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둠에 속한 것이다.

목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눅 21:5-13) 찬 545장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나타난다.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산다. 죽음의 고통에서 산다. 전쟁으로 죽고, 고난을 받는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이신다. 그러므로 육신에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 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훈련과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찢고 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지진이 기근이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라.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체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금 그날이 온다 (눅 21:29-36) 찬 426장

씩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 듯이 이러한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한다. 전능하신 주인의 말씀을 뜻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육신에 빠져서 이 징조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육신에 빠지면 방황함과 슬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둔해 진다. 즉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다. 그 날이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 그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라.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읽으라. 준비하라. 몸이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고 주인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라.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징조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라.

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눅 22:1-6) 찬 398장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는 대속 제물로 드려야 하는 날이 다가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하고 있다. 배후에 악한 영이 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악한 영이 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하지 못한 것은 주인의 정하신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악한 영이 하는 일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없으므로 그 정도에 따라서 악한 영이 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하심이 아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뱀과 전갈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타리를 옮기면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 (53)

이민자들의, 이민자들에 의한, 이민자들을 위한 책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성경은 옛날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은 이민자들의 책임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민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특성은 현대 이민자들의 특성과 흡사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히브리라는 이름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말로써 종족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건너다, 횡단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이동하는 사람, 방랑자, 유목민"을 가리켰습니다. 때로는 "거주지를 떠난 사람, 난민, 망명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히브리인은 "국경을 넘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민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약 4,000년 전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민 1세인 아브라함은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새로 밟는 땅의 곳곳에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수시로 되새기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역경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민 1세대들이 각자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민 2세인 이삭은 부모에게는 착한 아들이었고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과감하게 맞서기보다는 뒤로 한발씩 물러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민자의 자녀들처럼 부모와 주류 사회 사이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습니

다. 이민 3세인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비전을 일구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민 1세와 2세가 닦아놓은 터 위에 집안을 일으키고 타민족의 땅에 자신의 뿌리를 확고하게 심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형들에게 팔려 이민길로 내몰렸던 요셉, 입양아로 성장하여 자기 민족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한 모세,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갔다가 역이민을 통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한 룻, 이민 사회에 어울려 살며 동족의 양심 역할을 했던 에스겔, 이민자로서 외국 학문을 닦은 후 그 나라 정부의 관직에 머물며 동족을 도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민 2세였음에도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헌신한 에스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일신의 영달을 포기한 느헤미야 등 많은 이민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다. 모두가 아담과 하와와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 강 건너 낯선 땅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민자들 중의 이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이민자로 오신 예수님은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살다가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한시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이민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렇듯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가득찬 성경은 이민자들의 책임입니다.

둘째, 성경은 이민자들에 의한 책임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 베드로, 요한, 스테반, 바울, 바나바, 실라, 야고보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주님이라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곳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성경이 땅끝을 향해 퍼졌습니

다. 그래서 성경은 이민자들에 의한 책임입니다.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성경 속의 이민자들로부터 바톤을 물려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이민자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사는 이민자들에게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민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천국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배웁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민자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오늘날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때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민자들의 경험을 교사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오늘날의 이민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오늘날의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게 무관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민자들의 책이고, 이민자들에 의한 책이고, 이민자들을 위한 책임입니다.

참고로, 성경 안에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자, 즉 구원의 유일한 길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천국행 비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가까운 교회의 사역자를 찾아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화장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89. 의처(疑妻)증과 의부(疑夫)증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족과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다보면 배우자를 의심하는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증상인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1. 의처증과 의부증이란?

의처증과 의부증은 부정망상이라고 불리는 정신건강 질환의 일종입니다. 이 질환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행동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며,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을 때에도 이러한 망상이 지속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나 행동에 대한 의심과 질투의 감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종종 부정확한 정보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나타내며, 주로 배우자의 정직성이나 충실도에 대한 의문이 포함됩니다.

2. 의처증과 의부증의 특징

(1) 질투와 의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혹은 특별한 관심을 보일 때 질투와 의심이 발생합니다.

(2) 자아존중감 저하

의처증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3) 과도한 연락

의처증을 겪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과도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의혹과 불신

배우자의 언행과 행동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경험하며, 종종 배우자를 감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5) 대화 부족

의부증을 겪는 사람은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솔직하지 못하거나 솔직한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6) 관계 악순환

의부증이 심각하게 발전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초기 증상과 원인

의처증과 의부증은 일상적인 걱정이나 의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

(1) 불안: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2) 질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투나 의심이 생깁니다. (3) 자아존중감 감소: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아존중감이 감소합니다.

원인

(1) 과거 경험: 과거의 배우자와의 경험, 심리적 손상, 혹은 배우자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 간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이 의심과 불신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자아존중감 문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경우, 배우자의 충실성에 대한 의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의처증과 의부증 확인방법

(1) 과거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해 시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2) 현재 배우자가 외도를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하루의 많은 시간을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보냅니다. (4)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외도를 한 사람은 꼭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배우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7) 배우자가 바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8) 배우자의 핸드폰, 소지품 혹은 차 안을 가끔 점검합니다. (9)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 배우자의 외도는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11) 부부는 서로의 행적에 대해 알고 살아야 합니다. (12) 밝혀지지 않은 외도 문제로 부부 사이가 2주 이상 냉전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3) 외도를 확인하느라 이를 이상 잠을 안 재운 적이 있습니다. (14) 외도한 증거를 주변 사람에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15) 배우자에게 의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점과 평가

1-2번은 각각 4점, 3-6번은 1점, 7-13번은 2점, 14-15번은 3점으로 채점합니다. 총점이 4-6점이면 의심단계, 7-12점이면 의처(부)증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 13점 이상이면, 의처(부)증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극복 해결방법

의처증과 의부증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자기인식 강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이나 자기계발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솔직한 대화

배우자와의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 의심과 불신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심리치료 부부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의처증과 의부증을 관리하고 극복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기관리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뢰의 구축

시간을 투자하여 배우자와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증상은 가족과의 중요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며, 관계에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기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의사소통 습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힘과 지지를 주는 중요한 부분이며, 의처증과 의부증을 극복하면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문바오 종족

▲ 인구 약 2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힌두교

▲ 복음매체 민속 종교 89.91%, 불교 10%, 복음화율 0.09%

▲ 종족 프로필

야오족의 한 부류로 중국 동부에서 광둥성 북쪽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베트남과 라오스로 이동했다. 과거 사냥으로 유명한 종족이었으나, 지금은 주로 높은 산기슭 계단식 논 농사를 짓거나 화전으로 여러 작물을 재배한다. 도교, 정령숭배, 불교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을 무신론자로 여긴다.

▲ 기도제목

1.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을 지켜 주시고 이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2. 문바오족 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문바오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3. 성령이 번역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원 총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인/터/뷰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4대 총장으로 파송되는 엄영민 목사

지난 2017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은퇴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7대 총회장을 역임한 엄영민 목사. 그는 그동안 담임목회를 하고 원로목사로 섬기고 있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소감을 묻자, 엄영민 목사는 "이민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늘 이민교회는 목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교두보 같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교회에서 가능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제 개인적으로도 선교에 동참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선교지로 직접 가서 섬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간이 가서 많이 아쉬웠는데 최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신 선배 목사님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셨고 또 아내의 적극적인 후원 등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난 6월 7일 총장으로 취임한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대해 소개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트민스터는 15년 전인 2011년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유한호 목사님, 황보연준 목사님 등 몇 분이 시작을 하신 신학교"라고 소개한다. 그는 "본교는 캄보디아

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성경적인 바른 개혁신앙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설립동기이구요. 이 비전에 공감하는 미주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1세, 1.5세, 그리고 2세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 동역해서 섬기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40 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교사들 비롯 각 분야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부에 약 20 여명,

섬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엄목사는 "특별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평소 가까운 선후배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학교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학교에 뜻밖의 어려운 일이 있어 수업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했던 것인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에 취임하게 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

이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중에는 아직은 영어가 서툰 학생들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졸업 즈음에는 대부분 신학과 신앙의 훈련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좋은 일꾼들이 됩니다."라고 피력했다. 아무래도 선교현장은 남가주와 달리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가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해 힘든 점은 없느냐"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4대 총장으로 파송되는 엄영민 목사 부부

선교지 신학교로서는 시설이나 교육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이제 그런 바탕위

인도 및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사역의 범위를 더 넓혀 가고자 하는 꿈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주신 뜻밖의 사역의 기회이고 어쩌면 마지막 사역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학교를 통해 캄보디아는 물론 열방을 섬기는 더 귀한 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웨스트민스터신학교 4대 총장 엄영민 목사와의 연락은 pastoreom@hotmail.com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학교를 통해 캄보디아는 물론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대학원 과정에 약 15명 정도의 학생들과 목회자 재교육과정에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들려주었다.

은퇴 후 다음 단계로 신학교 총장, 그것도 선교지의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이어 그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캄보디아 현지 학생들은 물론 인접국인 월남과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인도, 말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반 이상의 학생들이 목회자의 자녀이거나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은 기자의 질문에 엄목사는 "힘든 점이 왜 없겠느냐"고 말하며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총장으로 사역하며 학교가 갖고 있는 과제와 비전을 물었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학교가

에 학교를 더욱 더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가능한 더 많은 일꾼들을 키워내고 또 배출된 일꾼들이 교회와 선교지, 기타 사역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더 나아가 학교를 통해 배출된 일꾼들을 통해 중국,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song_hase@hotmail.com

꽃들이 저가고 씨를 맺기 시작하면 나무들도 화초들도 앞

다투어 그 생생했던 모습들을 하나 둘 갖추어가기 시작합니

다. 그래서 초록으로 가득했던 정원 구석구석에 색이 발한 나뭇잎들과 화초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을 아무리 쥐도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절의 변화를 읽으며 정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렇게 색이 변한 화초들을 골라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정원을 오래 오래 보존시켜보려고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애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 둘 시들어가고 저의 정원

은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렇게 그런 정원을 돌보는 저의 마음에 '이런 모습이 인생 모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할 수 있는 대로 오래오래 잘 유지해 보려고 각종 시술과 화장품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정원의 나무들과 화초들이, 가는 계절 앞에서 자기들의 몫을 다하고 변화하듯이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가는 세월을 멈출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나뭇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 14)."



변화하는 자연을 보며...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타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이, 윤중석역



일상의 유혹 손상헌, 토기정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삼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생명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인미, 시시콜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김기석, 도서출판 KMC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리뷰(시디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